

동국관, 방학동안 새단장 했어요

일부 공간 마감 공사 지연돼 학내 구성원 불만 높아

우리학교 영상산학협력센터(가칭, 구 중앙대학부속병원) 단기 활용계획이 확정돼 실행됨에 따라 이와 맞물려 있던 동국관 공간배치가 방학 중에 단행됐다. 동국관 2층에 위치했던 창업지원단 산학협력센터(가칭, 구 신관)로 이동하면서 동국관 M동을 사회과학관, L동을 경영관으로 배정하고 총별·기능별 배치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교육강화를 위한 교수연구실 및 강의실 공간 확대를 위해 건

물별 강의실 수, 강의활용률, 강좌 수 등의 교육·연구여건 지표를 토대로 교육시설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강의실 12개 및 교수연구실 28개가 확보됐고 동국관 M동 2층에 약 200여명 규모의 미래형 개방형 열람실이 마련됐다. 특히 개방형 열람실은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스터디룸 및 열람실 공간이 오픈돼 학생들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국관 재배치 공사가 예정된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어 학내구성원들의 불만이 높다.

지난 1일, 개강을 맞아 모처럼 동국관을 찾은 많은 학생들은 새로 생긴 강의실 등 동국관의 변화를 반기면서도 전혀 안내돼있지 않은 동국관 공간 변화에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공사로 인한 소음과 전기배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에어컨 사용이 불가능한 강의실이 생기는 등 불편함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처의 관계자는 "이번 동국관 공사는 해당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공사가 지연됐다"며 "마감시한을 넘긴 것은 잘못이지만,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보다는 민주적인 의사소통과정을

거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의 미숙한 공사 진행도 공사마감을 늦춘 원인으로 보인다.

현재 동국관 2층 개방형 열람실과 5층 휴게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은 마무리 공사 중이며 추석전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감할 계획이다.

한편 영상산학협력센터(가칭, 구 중앙대학부속병원)에는 우리대학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된 영상문화콘텐츠 특성화사업의 추진거점인 '충무로 영상단지'가 구축된다. 현재 산학협력센터(신관)에는 △창업보육센터 △게스트하우스 △외부채 연구공간 등이 마련됐으며 영상센터(본관)는 (주)씨이더스가 산학공동 협약에 따라 4년동안 사용할 예정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개강후에도 공사가 진행중인 동국관 M동 2층 충무로에 위치한 산학협력센터(신관) 외관

종합기획 4. 환경분야 ① 생활쓰레기 "하루 음식쓰레기 1.5톤"

우리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에 약 1.5톤이다. 학교식당이 하루에 약 1만식을 공급하는 것에 비교하면 10인당 1.5kg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한다. 이 음식물쓰레기는 잔반부터 조리하고 남은 음식재료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잔반 처리대를 보면 적지 않은 양의 음식이 버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활에서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제각에 따라 배식하고 모자란 만큼 다시 배식하는 방법과 300식(교직원 식당)정도 자율 배식하는 방법 등의 노력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상록원 유재춘 영양사는 "잔반이 적게 남는 것은 자율배식이지만 비용 측면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

했다. 우리학교 음식쓰레기는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왔다. 10인당 음식쓰레기가 △고려대=0.54kg △세종대=0.4kg △연세대=0.53kg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잔반줄이기 행사도 있어 눈길을 끈다. 세종대의 경우 '잔반환원행사'를 실시한다. 이는 일정기간을 정해 학생들에게 공고한다. 이 행사기간에 잔반이 줄어 처리비용이 절감되면 그 금액만큼 질이 높아진 식사가 제공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행사기간동안 1인당 100원의 잔반처리비용을 절감했다면 다음 날 기준가격보다 100원 높은 질의 음식을 제공받는 것이다.

하지만 잔반을 줄이기 위해 이벤트 경향의 프로그램보다 학생들에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전달하는 방법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상록원의 한 영양사는 "이벤트 경향의 프로그램은 큰 실효성이 없다"며 "식수자들의 의식개선 프로그램이 더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학교가 일반쓰레기보다 타대학과 비교해 많은 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쓰레기를 제외한 일반쓰레기는 하루에 1만리터가 발생된다. 우리보다 인원이 많은 타대학과 비교해보면 △경희대= 1만리터 △연세대= 4천3백리터 △중앙대= 5천리터가 발생했다.

우리학교는 환경생태학을 중심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음식쓰레기 줄이는 계획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대학특성화 사업 등 4개 국고지원사업 선정

총 200억 규모 정부지원금 받는 성과 거둬

국고지원금을 받기위한 각 대학들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요즘 우리학교가 총 200억 규모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바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2005년도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2005년도 신규 우수연구센터-기초과학연구센터(MRC) 등 총 3개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이는 우리학교가 자랑하는 교육과 연구 중심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먼저 '2005년도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에서 우리학교는 자유과제, '영상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혁신사업'으로 1년간 지원금 20억 7천만원을 받고 지정과제 부문인 인문학에서 사업명 '통합인문학 기반의 차세대 문화인재 양성사업'으로 4년간 총 18억 원(연간 4억 5천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것에 비하면 선전을 한 것이지만, 자유

과제가 단편 지원에 선정된 것에 그쳐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처의 관계자는 "특성화사업 계획 자체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밀감축이나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은 산학협력단(단장=조성규·산업시스템공학)이 산업자원부의 2005년도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RFID(전자태그) 기반의 상품 라이프사이클 물류정보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 과

제를 수주한 것이다. 1단계로 3년간 총 6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번 과제는 3년후 평가를 거쳐 상용화 및 사업화를 위한 추가지원이 2년간 더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박원환(한의학)교수가 총괄 책임을 맡고 김철호(한의학) 4명의 교수가 연구자로 참여하는 '심혈관 계질환 천연물 개발연구센터'가 과학기술부가 선정하는 2005년도 신규 우수연구센터-기초과학연구센터로 지정돼 앞으로 9년간 총 61억 원의 지원받게 됐고 신홍묵(한의학)교수와 윤철호(한의학)교수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2005년도 한방바이오프로젝트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22억 4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대학부 dgupress@dongguk.edu



이번 학기 "파이팅"

지난 2일 문과대 학생회(회장=차주철·목문3)가 명진관 앞에서 개강 맞이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노트를 나눠줬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수시모집 원서접수 오는 10일부터

논술고사 유형 변경 불가피

수시 2학기 모집 원서접수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실시된다.

수시 2학기 총 모집인원은 총 988명이며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우수자=65명, △불교계추천=74명, △수학·과학 교과우수자

=58명, △외국어 우수자=45명 등이다.

수시모집은 수능능력 교과 우수자 및 외국어고교 출신자 전형이 신설됐다.

문학특기자 전형은 문학 재능우수자 전형으로 변경되고 장기취업

자 전형이 폐지됐다.

또한 일반우수자, 수능능력 교과 우수자, 외국어고교 출신자 전형의 내신반영비율도 평어 100%에서 평어70%+석차30%로 변경됐다.

한편 논술고사가 변별력을 높이고 고차 수준의 언어 논술고사에 외국어영역과 수리영역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 방침에 따라 금지됨으로써 논술고사 유형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사 신임 부주간교수



본사 경주캠퍼스 부주간에 김세곤(유아교육)교수가 임명됐다. 신임 부주간은 본교 졸업 후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본교 인사 발령

지난달 29일 김영길(불교학) 경주캠퍼스 부총장과 유석천(경영학) 기획처장이 사임했다. 이에 따라 오늘자로 고복현(의학)교수가 경주캠퍼스 부총장으로 임명됐다. 다음은 방학 중

에 단행된 교원·직원 인사내 용이다.

△문과대학장=봉일원(독어독문학) △공과대학장 겸 공학 연구센터장, 정보산업대학장=이진구(전자공학) (이상 7월 15일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 팀장=이정학 ▶2면에 계속

본사 사령

◇ 임 정기자 ▲김경민(문과대 윤리문화)

◇ 임 수습기자 ▲정영아(사과대 1)

- 이상 9월 5일자

칭찬합니다

본사에서는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니다'를 기획 연재한다.

◎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친절맨. 장희욱 조교



로 학생들과 동료 조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데. = 조교 일을 하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렇다 보니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고 최선을 다해 돕게 된다. 이제는 상대방이 먼저 인사말을 걸어오는 일이 많아져 기쁘다. 특히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로부터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들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

- 그래도 조교 일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을텐데 = 경영대학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 4월부터 대학원 내 농협 경영자 과정을 전담하는 일을 같이 하기 시작했다.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다보니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또한 농협의 차장급 이상 고위 인사 분들을 대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쓰이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영>

- 변치않는 웃음과 친절함으

brightah@dongguk.edu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060-700-0119

세상을 새롭게 보라!

동대신문사 47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인원 ○○명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원서접수 9월 13일(화) 오후 5시까지
전형일시 9월 13일(화) 오후 6시
원서교부 중앙도서관 옆 V동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문의 E-mail dgupress@dongguk.edu
Tel 02) 2260-3491-2

동대신문사

학교법인, 강남 한방병원 용도변경

정관변경, 교원인사 등 중요 안건 통과



학교와 교수회의 갈등으로 학내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지난달 30일 제211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정관변경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안건이 통과됐으나 교원인사 등 일부 안건에 관해 이사들간의 이견으로 설전이 오갔다.

특히 기타 안건 논의 도중 장운수 회장이 "학기초부터 지속됐던 교수회와 학교간의 갈등으로 인해 총장의 개혁정책이 주춤거리고 있

는데 책임을 지고 옹퇴할 의사가 없냐"는 돌출발언을 해 이사회 분위기가 경직되기도 했다. 이에 흥기삼 총장은 "앞으로도 개혁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구성원들의 협조 속에서 학교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관심이 주목됐던 상임이사 선임 건은 이재창 이사의 건의로 다음 회기로 넘겨졌다.

이사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수익사업 명칭에 부동산업을 새로 포함시키는 정관변경안이 통과됐다. 이는 재단소유의

토지나 건물 관리의 원활함과 앞으로 진행될 수익사업의 다양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법인 수익사업으로 일산불교병원 부대사업 운영 사업소와 하나로 동국대 한의원을 추가하는 정관시행세칙 변경도 승인됐다.

교원인사는 최봉석(법학)교수와 5명이 특별채용됐으며 장방(중어중문학) 교수 외 6명의 외국인 교원도 채용됐다. 특별채용은 법학전문대학원 추진을 위한 법대 교수 영입을 비롯 보다 적극적으로 우수교원을 초빙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김형상(물리학)교수 외 28명의 교원이 승진 임용됐으며 교수회(윤리문화화) 외 12명의 교원이 면직됐다.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에 관한 안건은 교육용재산으로 등록돼 있던 강남한방병원을 수익용재산으로 용도변경 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용도변경이 승인되면 법인은 강남한방병원을 외부 병원 업체에 85억

원을 받고 임대할 예정이며 이 금액은 우리학교 교비회계로 환수된다. 이는 지난해에 결정된 교육부의 341억 교비환수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인사무처의 관계자는 "지난해 70억원이 교비로 환수됐고 이번에 강남한방병원 임대료 85억원, 법인재산 30~40억원, 그리고 앞으로 매각될 경주 한방병원 매각 금액까지 교비로 환수하면 내년 초 쯤에는 교비 환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동국대병원+한방병원 출입도로 2차선 확장공사에 포함되는 우리학교 부지 997평을 기부채납하기로 승인했다. 따라서 동국대병원+한방병원의 문제로 지적됐던 좁은 출입로가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주병원 의료기기 도입을 위한 리스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도 이번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마음은 벌써 고향에 ... 오는 18일 한가위를 맞아 생활협동조합에서는 귀향버스와 한가위 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 귀향버스 접수는 오는 7일(수)까지 상륙원 앞에서 이뤄지며 버스는 16일 오전 9시 대운동장에서 출발한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회전무대

헛갈리네 헛갈려

○...원활하게 진행되던 수시 2학기 전형 일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알아본즉 수시원서 접수 기간을 코앞에 두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논술고사에 영어 제시문이나 수학·과학관련 문제 출제를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논술고사 유형의 옹고그름을 떠나 갑작스럽게 논술고사 출제방향을 변경하는 것은 학교와 수험생들에게 혼란만을 가중시키지 않을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교육부가 발표한 갑작 이벤트, 학교와 수험생들에게 끔찍할 따름"

공간이동

○...동국관의 예고없는 공간이동으로 학생들이 당황을 금치 못했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방학동안 진행된 동국관 공사로 학생회실을 비롯해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대부분의 공간이 재배치되었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변동된 공간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동국관은 교통표지판 없는 고속도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단 구성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활동 할 것으로 기대

지난달 29일 본격적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활동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단'이 구성됐다. 김병식(생명·화학공학) 부총장이 단장을 맡고 손성(법학)학과장 기화(법학)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단'은 총 13명의 위원으로 운영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은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자문위원단과 실무분과위원회와 함께 활동하게 되는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자문위원단은 흥기삼(국어국문학) 총장을 단장으로 △법인임원 △블로그계 인사 △동문 법조인 등 우리

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분과위원회는 설립 계획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게 되는데 설립인가신청서 제출서류 항목을 고려해 △규정·인사제도분과 △교과과정분과 △재정분과 △시설분과로 구성됐다. 실무분과 위원들은 만해관 4층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 사무실을 회의장소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에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은 앞으로 2주에 한번씩 추진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학교의

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변경을 교육부에 신청했으며 현재 동국대병원+한방병원이 위치한 일산캠퍼스를 의학전문대학원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대해 교육부와 협의 중에 있다.

유영빈 동문 정치수배 해제

유영빈(05 경영졸) 2003학년도 총학생회장이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정치수배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유영빈 동문은 4년간의 정치수배자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관련 인터뷰 10편

▶1면에서 계속 △출판부장=하정윤 △총무처 구매팀장=박광호 △정보관리실 정보시스템관리팀장=문용주 △이과대학 행정지원실=강기원 △문과대학 행정지원실=이명호 △총무처 시설관리팀=변재덕 △교무처 학사지원실=박훈선 △연구처 산학연구지원팀=김봉주 △국

제교육원 국제교류실=정현수 △경영대학, 경영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김명숙 △학생처 학생복지실=김미경 △출판부=최유향 △불교대학, 불교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조정복 △정보관리실 정보자원관리팀=장동미 △총무처 시설관리팀=고봉기 △정보산업대학, 산업대

학원 통합행정지원실=함영란 (이상 8월 1일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교육부장=김혜숙(국어교육) △국제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교육부장=신나민(교육학) (이상 8월 22일자) △공과대학 행정지원실=김종애 △이과대학 행정지원실=박태경 (이상 9월 1일자)

하나로 동국대 한의원 개원

지난달 18일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에 동국대 한의원을 개원했다. 이는 우리학교 한의과 대학과 (주)농협유통이 산학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하나로 동국대한의원은 29종의 국산 약재를 사용해 한약을 조제하는 것이 특징이며 우리학교 한의과 대학에서 파견된 서운교(한의학)교수가 진료를 맡았다.

한편 한의원의 규모는 약 22평이며 탕전은 전산처방전을 이용해 분당한방병원에서 이뤄진다.

직무적성검사 7일까지 접수

취업지원센터(센터장=조의연·영어영문학)에서는 오는 12일, 13일 2회에 걸쳐 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취업 시 기입에서 실시하는 직무적성검사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참가비 2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취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7일까지 취업지원센터(분관2층)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정원은 매회 200명이다.

이번 직무적성검사는 △1차=12일 3시 △2차=13일 5시에 실시된다.

2004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 거행

"졸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200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달 23일 본관 중앙당에서 열렸다.

김현해 이사장과 흥기삼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사보고 △총장식사 △이사장식사 △학위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학사 529명, 석사 565명, 박사 73명 등 총 1167명이 학위를 받았다. 또한 공로상

은 △이인화(국문) △이용준(경제) △김성현(전자공) △이석우(기계공)가 수상했다.

이날 흥기삼 총장은 "사회에서 전문 지식과 더불어 종합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특별한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건학이념으로 둔 우리학교의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제2회 독서 퀴즈대회 접수 마감

오는 14일 팔정도에서 본선 진행

중앙도서관(관장=정진환)이 주최하는 '제2회 동국 독서 퀴즈대회'가 오는 14일 팔정도 불상 앞에서 열린다.

동국 독서 퀴즈대회는 최종 잔류자 3인이 남을 때까지 진행되며 문제는 △인문 △사회 △자연 △불교 △도서관 이용의 5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10문제씩 총 50문제가 출제된다.

참가자는 접수자 중 중앙도서관

에서 책을 많이 빌린 사람 순으로 50명을 선발하며 참가접수는 지난 2일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와 중앙도서관 내 자연과학실에서 이뤄졌다.

이번 독서 퀴즈대회는 독서의 달을 맞아 학생들에게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자 마련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앞으로 매년 치러질 예정이다.

불성실 캠퍼스

○...최근 캠퍼스 내에는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개강 이후 며칠간은 수강정정기간이란 이유로 휴강하는 교수들과 수업을 빠지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라고.

수강정정기간은 교수는 수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은 수강여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교수와 학생 모두 성실하게 수업에 임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얼굴도 모르고 나간 미팅 누굴 탓하리!?"

어설픈 분실함

○...만해관 입구의 '분실물 보관 데스크'의 명칭이 '분실물 재분실 데스크'로 바뀌었다는데, 알아본즉 입구 데스크에 찾아가라고 진열된 물건 중 값비싼 것들이 수위어져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람이 도난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잃어버린 물건을 잘 보아게 할과 동시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있고 문이 투명으로 처리된 진열장을 분실물 보관함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는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분실물 데스크! 부실한 데스크!?"

좌선법회 안내

일시 : 9월7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7:30 ~ 8:50
지도법사 : 정각원장 진월스님
장소 : 정각원 법당
수련교재 : 육조단경/청화스님 역해(광문사)
시간배분 : 좌선수련 30~40분
좌선기초 및 강의 20~30분
차담(질의응답) 20분
문의처 : 좌선회 (3457, 3703)

동국 좌선회

졸업요건 영어PASS제 토익시험(9월) 시행

1. 접수 : 9. 12(월)~9. 16(금)
2. 방법 : ① 온라인 접수 : 동국대학교 홈페이지 - 재학생서비스 - 외국어PASS제 - 영어패스시험 신청 - 접수증 출력
② 방문접수 : 9:00~17:00 국제교육원 외국어교육센터
3. 시험 : 2005. 9. 24(토) 10:00~12:30 (해화관 1, 2층)
4. 대상 : 영어PASS제 대상자 및 일반모의토익 신청자
5. ① 온라인 접수시 : 접수증은 개별출력 / 사진은 20일까지 송부
② 방문접수시 : 반명함사진 두장, 사진신분증 (본인만 접수 가능)
6. 응시료 : 5,000원
* 온라인접수자는 늦어도 익일까지 통장 입금(미입금시 취소)
(호출 371-03-011192 : Korean Program)
7. 시험일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접수증, 볼펜, 연필(사프)
8. 문의 : 국제교육원 (해화관 1층, 2200-3471, 3590)
9. 주의사항 : 가. 10시00분 이후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신분증,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입실할 수 없습니다.
다.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시험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국제교육원

동국포럼 개최

동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모교 동국대학교가 내년이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문사회도 이에 맞물쳐서 새로운 도약을 기하여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시는 동문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류는 물론 모교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제1회 포럼을 개최하오니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디 왕림하여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 제 : 동문들의 힘으로 맞이하는 백년 동국
- 장 소 : 소피텔 엠베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
- 일 시 : 2005년 9월 7일(수) 오후 6:30
- 참가비 : 30,000원
- 문 의 : 02-561-7308~9, 017-216-2981

동국포럼 공동추진위원

정재철 · 류근창 · 황명수

2005 예비군 보충교육훈련 소집공고

1. 교육대상(대학 예비군에 편성된 자)
가. 전반기 훈련 불참석자와 2학기 신고자중 훈련대상자

계	1일차	2일차
일 자	9월 13일	9월 14일
대 상	전반기 불참자	2학기 신고자

2. 교육일정 / 장소
가. 훈련 대상자(전역1-6년차) / 노교산 훈련장(2199년대 2세대)

3. 복 장 : 예비군복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장, 허리띠)

4. 휴대품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학생증, 면허증)
* 분실자는 예비군 연대에서 편성카드 복사

5. 유의 사항
가. 구파발 전철역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200m 지점에 34번 버스 탑승
* 07:00시 이전까지 도착하여 버스 탑승(지연 도착자 버스 지연 불가)
나. 개인 자가용 운행가능(주차장 완비)
08:00시 이후 훈련장 도착자 입소 불가 (위병소 통제)
다. 예비군복중 1가지라도 미착용 또는 불량자는 입소불가
라.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필히 지참
마. 개인명단 확인 / 상세문의 : 예비군 연대본부 및 각 대학 행정 지원실

*** 훈련전일 지나친 음주는 가급적 삼가 ***

동국대학교 직장에비군 연대

(예비군 연대본부 : ☎ 2660 - 3073 ~ 4)

강정구교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관련 취재

강정구교수 사법처리 반대 운동 활발히 진행

사건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 결성 ... 일부 보수단체들 학교에 압력 행사

강정구(사회학)교수가 지난 7월 인터넷 언론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기고한 '백여대를 알기나 하나요' 칼럼의 일부 내용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시 되는 내용은 '한국전쟁은 북의 통일전쟁'이라는 강정구 교수의 주장이

다. 서울경찰청이 강정구 교수를 소환해 조사 하는 등 사법처리 움직임이 본격화함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학내·외 단체들의 적극적인 강정구 교수사법처리 저지 활동이 시작됐다.

지난 2일 강정구 교수가 조사를 받기 위

해 출두한 옥인동 서울경찰청 보안부실 앞에서 전국교수노조 등 진보단체 회원들은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오후 1시 동국관에서도 강정구 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동국대 학생대책위원회와 민주노동당 학생 위원회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색깔공세 중단,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철회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정구 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동국대 학생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문적 입장에 대하여 학문적 평가와 반론 그리고 토론을 통해 옳고 그름이 규명되는 것이 상식인데 반복대결적 시각에 매몰된 보수단체들이 반복대결을 부추기고 있다"며 "독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라는 사법적 잣대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철 지난 색깔공세를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성화(사회3) 사회학과 학생회장은 "통일내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그동안 교수

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토론에 참여했던 학생들 모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번 학기 강정구 교수가 강의하는 한국사의 이해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수의를 입고 기자회견에 참석해 경찰의 사법처리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강정구 교수가 기고한 칼럼 내용에 반대하는 보수 우익 단체 수십 명이 학교에 항의방문을 통해 강정구 교수 강의 폐강과 함께 해임을 요구한 데 이어 8월 중순부터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돼 학내 구성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보수·우익 단체들의 외부압력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강정구 교수님의 수업 수강신청 인원이 폐강인원을 훨씬 넘는 만큼 수업이 폐강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지난 2일 열린 강정구 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동국대 학생 대책위 기자회견 모습.

2005년도 임단협 협상 마무리

사실상 임금 동결 ... 직원들 희생정신 발휘

22일 학교와 직원노조의 200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이번에 합의된 임금교섭 내용을 살펴보면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평균 4.11%(일반직=평균 3.87%, 기능직=평균 5.06%)로 임금이 인상됐다. 이는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이뤄지지 않은 것인데, 이와 관련해 직원노조 변민우 과장은 "내년이 개교 100주년을 맞은 만큼 교직원들이 희생을 감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체협약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직급 승진 인사제도 개선 △인사평가제도 개선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 △연장, 야근, 휴일 근로수당 지급 △후생복지시설 확충 △건강검진 실시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교육훈련 예산 확충 등 10개 항목이다.

직급승진 인사제도 개선은 교직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및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기

하기 위해 노사동수로 직급승진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직급승진인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인사평가제도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근무평가를 정착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또한 구체적인 방안은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연장, 야근,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사항은 2006학년도 시행을 전제로 시행 방법 등에 대해 2005학년도에 노사동수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간 연구,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건강검진 실시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정밀한 건강검진을 2년 1회이상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에서 학교부담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동약로 부족한 개강

"공사 소리 때문에 수업에 집중을 못하겠어!"

지난 1일 개강 후, 동국관에서 수업을 하던 학생들이 불만을 터뜨린다. 강의를 하던 교수들도 흐름이 끊기자 언짢은 기색이 역력하다.

개강을 했지만 동국관은 아직 아쉬운 상태이다. 방학 중에 시작된 공간 이동 공사가 개강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강의실은 대략 정리됐지만 2층 창업지원센터와 5층 휴게실이 있던 공간은 공사가 한창이다.

늦어진 공사에 담당부처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공사를 맡은 업체와의 애초 계약은 8월 말까지 완벽하게 공사를 마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업체측의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기가 많이 늦춰진 상태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잡무는 인정하지만 공기가 촉박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기재제를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겨 더 지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담당부처는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2교대로 작업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결국 공사에 대한 해당 업체의 수행능력이 부족해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 학교에 서는 이번 규모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일반 공개경쟁 입찰' 방식에 의한 예정이 이하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한다. 학교에서 일정한 공사 조건을 제시하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그에 해당하는 가격을 제출, 그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선정된 업체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가를 검증해 볼 방법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문제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담당자는 "앞으로는 대학공사 실적 경험이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입찰 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을 강구중이다"고 말한다.

동국관 공사는 추석 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업체 측은 공사 지연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불하겠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결국 동국관 구성원이다. 사전에 업체 검증과정이 있었다면 보다 유쾌한 개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씁쓸함을 남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단기 기획 학교·교사회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① 학교

일방적인 제도 도입이 가장 큰 문제

교수들의 참여 없이는 성공적인 제도개혁 어려워

교육업적평가 시행 전면 취소 여부를 놓고 극에 달했던 학교와 교수회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학교와 서울·경주 캠퍼스 교수회가 몇 차례 협상을 거친 뒤 교육업적평가제도 개선에 합의한 것이다.

교육업적평가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평가항목 구성과 항목별 배점 결정시 학문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단과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단과대학 교육업적평가 시행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평가에 따른 교육활동장려금 지급 방식도 평점에 따른 등급구분 없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한 모든 교원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평점이 상위에 속하는 교원에 대해 일정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교무처의 관계자는 "교육업적 평가가 단과대별 교육업적평가안 마련을 위해 잠정 중단된 것은 사실이지만, 폐지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구성원들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 없는 개혁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육업적평가는 시행초기부터 많은 교수들이 평가항목 구성의 객관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학문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관련부처는 시행을 하면서 개선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1학기 교육업적평가에 참여한 교원은 152명으로 45%에 그쳤다. 결국 교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물론 평가제도 자체의 성격상 평가를 해야 하는 입장인 학교와 평가 대상이 되는 교수가 전적으로 의견을 일치시키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업적평가 시행 취지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이 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것은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와 관련해 염준근(통계학) 교수회장은 "교육업적평가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수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이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수회가 교육업적평가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학교는 앞으로 교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구성원들의 동의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은 교육업적 평가 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 개혁이 이뤄질때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이번 서울·경주 캠퍼스 교수회와 학교간의 갈등과 관련한 경주 캠퍼스 김영길(불교학) 부총장과 서울 캠퍼스 유석천(경영학) 기획처장이 사임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취업 정보 메일로 받아보세요

이번 달부터 잡 매거진 발송

취업지원센터(센터장=조의연·영어영문학)가 정확하고 다양한 취업정보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매주 목요일 '잡 매거진'을 이메일로 발송한다. 3, 4학년 학생과 졸업생에게 제공되는 잡 매거진에는 △직업소개 △취업성공기 △진로컨설팅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취업지원센터는 홈페이지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이버 진로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예약도 할 수 있다.

가을학기 봉사단원모집

접수기간은 오늘부터 7일까지

참사참봉사단(단장=조의연·영어영문학)이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가을학기 봉사단원을 모집한다.

사회봉사단원은 신청한 해당기관에서 활동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해 33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평가 결과 패스로 인정된 학생들은 졸업이수학점으로 1학점이 인정되며 성적 우수 장학생 선발 시 시간 인정 등 다양한 특전을 얻을 수 있다.

이전에 선발된 사회봉사단 단원들은 오는 10일 중강당에서 예비교육을 받고 한 사랑 마을과 향림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은 오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이다.

2005년 한가위 귀향버스 운행안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학내구성원들을 위한 한가위 귀향버스를 아래와 같이 운행합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1. 접수 및 출발
 - 가. 접수일시 : 8. 29(월)~ 9. 7(수), 오전 11시~ 오후 5시 30분(8일간)
 - 나. 접수장소 : 상복원 앞
 - 다. 운행기간 : 8. 29(월)~ 9. 9(금), (10일간)
 - 라. 운행장소 : 혜화관1층 생협사무국
 - 마. 출발일시 및 장소 : 2005. 9. 16(금) 오전 9시, 대운동장
2. 귀향버스 노선안내

순번	구역	노선	버스대수	가 격		비 고
				조합원	비조합원	
1	경상	부산	3	10,000원	14,000원	
2		울산	2	9,000원	13,000원	
3		마산	1	9,000원	13,000원	
4		진주·사천·통영·거제	1	9,000원	13,000원	
5		함안·진해	1	9,000원	13,000원	
6		포항	1	9,000원	13,000원	
7		경주	1	9,000원	13,000원	
8		밀양·양산·김해	1	9,000원	13,000원	
9		대구	2	7,000원	10,000원	
10		김천·구마·거창·함양	1	6,000원	8,000원	
계				14대	-	-
11	충청, 경상	대전·영주·안동	1	5,000원	7,000원	
12		충주·문경·상주	1	5,000원	7,000원	
계				2대	-	-
13	충청, 전라	공주·논산·익산	1	6,000원	8,000원	
계				1대	-	-
14	충청	대전	1	4,000원	6,000원	
15		청주·영동·옥천	1	4,000원	6,000원	
16		당진·예산·홍성	1	4,000원	6,000원	
17		서산·보령·서천	1	4,000원	6,000원	
계				4대	-	-
18	전라	광안·여수	1	9,000원	13,000원	
19		순천·별교·고흥	1	9,000원	13,000원	
20		무안·목포	1	8,000원	11,000원	
21		광주	1	7,000원	10,000원	
22		문안·영암·고흥	1	6,000원	8,000원	
23		한주·남원	1	5,000원	7,000원	
계				6대	-	-
24	강원	원주·강릉·동해·속초	1	6,000원	8,000원	
계				1대	-	-
합계				28대	인원미달시 노선취소	

3. 조합원가입 : 다항관내서점, 접수장소(상복원앞)
4. 문의 : 생협사무국 / 02-2260-8946 53

생활협동조합

9월 취업지원팀 기업체 리쿠르팅 안내 (10:00 ~ 17:00)

월	화	수	목	금
5일	6일	7일	8일	9일
삼성SDS 취업상담실	삼성SDS 취업상담실	삼성SDS 14:00 중강당 설명회	삼성SDS 취업상담실	삼성SDS 취업상담실
삼성화재 중강당	삼성화재 교무위원회의실	삼성화재 교무위원회의실	삼성전기 다항관세미나실	삼성전기 다항관세미나실
삼성전기 다항관세미나실	삼성전기 다항관세미나실	삼성전기 다항관세미나실		
SK건설 취업자료실	SK건설 취업자료실	삼성에버랜드 취업자료실		
코리아리 재보험 16:00 기업설명회				
교무위원회의실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CJ 다항관세미나실	CJ 16:00 중강당 설명회	CJ 다항관세미나실	
			한국전력 14:00 중강당설명회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대우증권 16:00 중강당설명회		실전모의면접 13:00~17:0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취업정보' 란과 구내전화 3064~5로 문의바랍니다.

학 생 처

건학 100주년 D-200기념 제1회 목멱가요제 안내

동국대학교를 대표하는 최고가수는 누구입니까? 음악동아리 대표가수, 학과의 최고가수, 초정정내용의 숨은 고수가 한데 모여 일반상천 학우들 앞에서 자웅을 겨뤄 봅시다!!!

예선

일시 : 9월 15일(목) 늦은 5시 ~ 본관 중강당
 * 심사는 전문음악인이 가창력, 연주, 댄스 등 다양한 관점으로 진행합니다.
 * 솔로, 듀엣, 그룹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선 접수

일시 : 9월 5일(월) ~ 13일(화)
 접수처 : 학생복지실(본관 3층), 교육방송국(학생회관 4층), 예술대행정실(문화관 1층)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 온라인 접수 가능)
 자격 : 전 동국인(휴학생, 2006년 수시합격생 가능)
 문의 : 2260 - (3048, 8503, 3423)
 * 예선전 참가자 전원에게 문화상품권(1만원권) 증정
 * 총 12개팀 본선 진출 예정

본선

일시 및 장소 : 10월 5일(수) 늦은 6시, 대운동장 특별무대
 진행 : 본선 진출곡 MR제작(직접 연주팀 제외)
 사회 : 노회정(나문서(KBS 상상플러스))
 초대 : 박마마, 유진박
 주최 : 100주년기념사업본부, 교육방송국, 동대신문사, 학생복지실
 * 선착순 3000명에게 동국 100주년 기념품이 배부됩니다.

시상

대상 1팀 : 트로피, 장학금 100만원
 금상 1팀 : 트로피, 장학금 80만원
 은상 1팀 : 트로피, 장학금 70만원
 동상 1팀 : 트로피, 장학금 50만원
 인기상 1팀 : 장학금 50만원
 * 시상권에 들지 못한 본선 진출팀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

동국대학교 목멱가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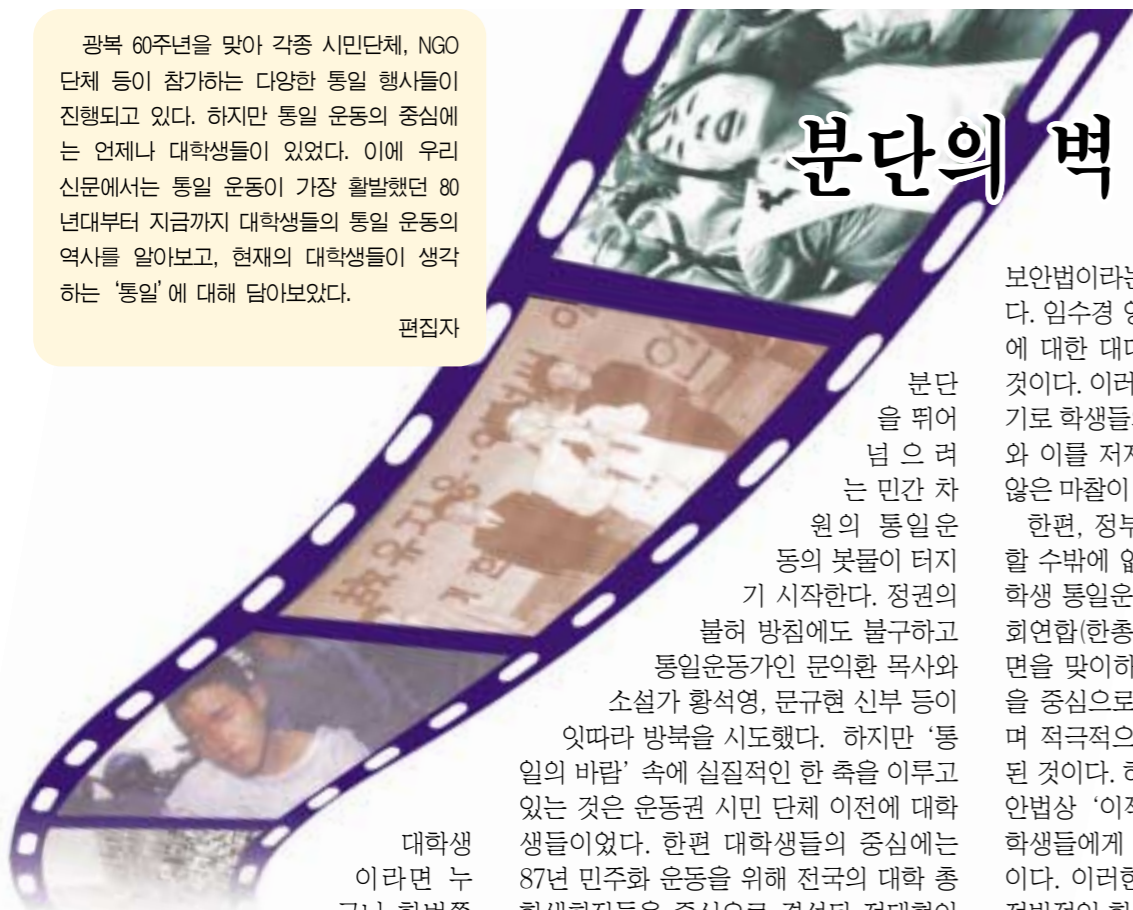
광복 60주년을 맞아 각종 시민단체, NGO 단체 등이 참가하는 다양한 통일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통일 운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대학생들이 있었다.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통일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학생들의 통일 운동의 역사를 알아보고, 현재의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통일의 꽃' 입수경에 대해 들어본 경험

이 있을 것이다. 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을 감행했던 그녀의 거침없는 목소리와 당당한 모습은 남·북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당시 국민들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엄청난' 일을 감행한 그녀가 평소 자유분방하게 생활하던 평범한 대학생이라는 점이

었다. 1989년 1월, 재야운동권단체였던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이 결성된 이후



분단의 벽 속에 피는 '통일의 꽃'

대학생 통일운동의 역사를 알아본다

보안법이라는 '족쇄'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입수경 양의 방북 사건 이후 학생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의 단속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학생들의 통일 운동을 탄압하는 정부와 이를 저지하려는 학생들 간에는 적지 않은 마찰이 발생한다.

한편, 정부의 강압적인 진압으로 주춤할 수밖에 없던 전대협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통일운동은 1993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출범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한총련은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한 범민족대회 등을 개최하며 적극적으로 통일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97년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로 판결되면서 일반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잃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한총련의 '대표성' 상실은 전반적인 학생운동의 위기를 가져오며 그들의 중심이념이었던 통일 운동 역시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통일운동은 더 이상 중심적인 화제나 당위적인 목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사회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정용길(정치외교학) 교수는 "대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관심이 부족해 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8, 90년대 학생들에 비해 냉정하게 통일을 바라보며, 이벤트적인 운동을 통한 통일보다는 외교차원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나치게 '보여주기' 식 성과주의의 통일운동은 점차 고개를 숙이고 북한의 인권문제, 정치·군사 안보 체계 등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의 수가 늘고 있다. 지난달 15일 우리학교에서 열린 '북한 인권과 통일을 위한 대학생 심포지엄'에는 이화여대, 전북대, 원광대 등의 북한과 통일을 연구하는 단체들이 참가해, 남북통일의 현주소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제언한 북한 민주화 학생연대의 김익환 대표는 "대학생들의 주도로 북한의 인권 문제와 민주화 등을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통일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에게 통일은 더 이상 정부와 대치하며 힘겹게 몸으로 부딪쳐야만 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시작으로 6·15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불기 시작한 남북의 평화와 화해의 물결, 이제는 대학생과 일부 통일운동가들을 넘어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의 각종 시민단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을 통해 양측의 활로가 트이고 있는 상황이다.

분단 60년의 역사 속 '소리' 있는 대학생들의 통일을 향한 끝없는 의침은 분단의 얼음벽을 서서히 녹이고 있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사설

학내 구성원의 기대는 크다

지난 1일 새롭게 학기가 시작됐다. 이번 학기, 학교에 거는 학내구성원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건학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이다.

우선, 날로 떨어지고 있는 '동국 코끼리'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 오는 11월에 있을 비전선포식을 비롯해 '38대 총 학생회장 선거', '학교와 구성원들의 원활한 의견 창구마련' 등은 우리학교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이므로 진지한 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얼마전 우리학교는 특성화사업 등에 선정돼 총 200억 규모의 정부지원금을 획득했다. 하지만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상황이 많이 침체되었다. 실제로 중앙일보에서 실시한 사립대 기부금평가에서 우리학교는 18위를 기록했다. 또한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줄 총학생회도 없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자치문화도 사라진지 오래다.

그런 만큼 이번 학기는 어느 때보다 '활력 불어넣기'에 주력하는 학기가 되어야 한다. 물론 100주년 해법을 놓고 구성원간의 의견차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도외시해서는 곤란하다.

때마침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서로 등돌리고 있던 학교와 동창회 그리고 교수회가 화해의 악수를 청했다. 학교도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대화합'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화합으로 서로 극단으로 치달았던 관계가 복원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각 구성원들과 관계도 더욱 확고해졌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간절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학기는 구성원들의 불만을 떨고, 학내에 활력 불어넣기의 해법을 찾는 학기가 되어야 한다. 굼직굼직한 사업이 진행될 이번 학기에 거는 구성원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학교는 인식해야 한다.

동국만평

정명근 gmgoe@hanmail.net



'8.15민족대축전' 스케치

'가슴'으로 통일에 다가서다



"평~화통일 짹 짹 짹" 우레와 같은 합성소리와 대형 한반도기가 관객석을 넘실거린다. 남북 대표단이 푸른 경기장으로 들어서자 관중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한마음, 한 뜻으로 통일을 외친다. 지난 달 14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축구를 시작으로, 광복 60주년을 기념하는 대국민 '8.15민족 통일대축전'이 개막됐다.

성화가 점화되고 아리랑 반주에 맞춰 한반도기가 게양된다. "평평" 소리를 내며

터지는 폭죽과 함께 경기장 천장에 '통일은 됐다!' 라는 글귀가 펼쳐진다. 이어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어린이들의 시 낭독과 함께 '고향의 봄'을 부르는 시간. 한반도 접해보지 않은 북쪽 동포들과 공유할만한 문화와 사연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음을 실감한다.

축구 경기가 시작되자 관중들은 '통일조국'을 외치며 양 팀을 응원한다. 하지만 남측 선수의 연속 골로 3:0의 점수 차가 나자, 관중들은 일제히 북측선수단을 응원하

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언젠간 남북이 자유로이 함께 축구를 할 수 있기를만을 바랄 뿐이다.

다음날, 1만 2천명의 시민과 대학생들은 '평화통일'을 위해 다시 뭉쳤다. 한낮의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도 우리의 열정만큼은 아니었다. 참가자들은 "우리민족끼리 통일해요", "6.15공동선언 이행해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종로거리를 행진했다.

인도에 서서 통일의 염원을 담은 한반도

기를 들고 응원하는 시민들을 보며 통일에 한 발짝 다가감을 느낀다.

행사에 참여한 김윤권(야간정통4) 군은 "남북해의 대표단, 여러 시민단체, 대학생들이 모여 이처럼 대규모적인 행사를 진행한 일은 처음인 것 같다"며 "통일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것 같아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행사 마지막 날 북한대표단과의 또 다른 만남, 815 남북해외청년학생연대모임이 개최됐다. '하나가 되어요' '경의선타고' 등을 부르며 어깨동무를 하고 울동을 함께 하는 2천여명의 남북대학생들을 보며, 60년간 굳게 닫혀왔던 마음이 하나 뒀을 알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한 북측의 한 여학생은 "오늘의 정열, 기세라면 통일은 가까운 앞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통일의 첫 세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한 민족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번 대국민적인 통일 행사를 통해 마음속으로만 그려왔던 통일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한다.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김재운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	김세민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장	정경훈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편집장	홍주상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학문분야 ‘미학’

주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적 가치의 전 영역 포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특성이다. 이는 본능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을 판가름 할 수 없다. 이에 '미학의 역사'와 '현실이 잘못 반영된 미의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미학의 출발을 고대 그리스 학자들에서 찾을 수 있으나, 그들의 관심은 미학 그 자체라기보다는 '미란 무엇인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것에 있었다. 즉, 플라톤은 내용보다 형식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으며, 미는 진리나 유용함과 관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미의 세 가지 본질적 요소가 전체성(integras), 조화(consonantia), 광휘(claritas)라고 확신했다. 이처럼 질서, 균형, 조화, 비례의 개념과 함께 중용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지나치지 않음'(nothing in excess)은 미를 규정하는 그리스의 문화적 전통이라 할 수 있다.

근대 미학의 개념을 재창안한 바움가르텐의 미학이라는 용어는 그리스 전통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는 aesthetics라는 용어를 그리스어 aisthesis(느낌 혹은 감각적 지각)에서 끌어왔다. logic(논리학)이나 ethics(윤리학) 모두 logos나 ethos 등의 그리스어에 그 어원을 갖는데 반해 바움가르텐이 제시한 미학은 '감성적 인식의 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는 감정을 일종의 인식 능력으로 보고, 감성을 일종의 유사 이성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미학은 '감성적 인식의 학'이며, 미는 감성적 인식의 완전성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고전 미학은 어디까지나 미의 본질을 묻는 형이상학이어서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초감각적 존재로서의 미의 이념을 추구하였다.

이에 반해 근대 미학에서는 감성적 인식에 의하여 포착된 현상으로서의 미, 즉 '미적 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 '미적 인 것'은 이념으로서 추구되는 미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의식에 비추지는 미이다. 그러므로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근대 미학은 자연히 미의식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예술 작품이나 자연미를 향수할 때 우리의 의식은 사물에 대한 이해 관계 또는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독립되어 극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떤 합목적성을 실현한다. 칸트는 그런 점을 분석하여 미의식을 '무관심성',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라고 특징지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독일 관념론의 사변적 미학을 대신하여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사례를 근거로 하여 미이론을 구축해 나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페흐너는 '아래로부터의 미학'을 제창하면서 심리학의 입장에서 미적 경험의 법칙을 탐구하려는 '실험미학'을 주장하였다.

오늘날에는 또 미적 현상의 해명에 사회학적 방법을 적용시키려는 '사회학적 미학'이나 분석철학의 언어 분석 방법을 미학에 적용하려고 하는 '분석미학' 등 다채로운 연구 분야가 개척되고 있다.

오늘날의 미학의 대상은 미와 연관을 갖고 우리의 의식 속에 비추지는 모든 '미적 인 것'을 포괄한다. '미적 특성'(aesthetic property) 또는 '미적 가치'(aesthetic value)로서 매력적인 것, 우아한 것, 숭고한 것, 영웅적인 것, 비극적인 것, 추한 것, 천한 것, 익살스러운 것 등도 모두 해당된다.

결국 미학은 단순히 미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인간이 주위에서 발견하고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 창조하고 예술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미적 가치의 전영역을 다룬다.

따라서, 미학은 공허하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학문분야이다. 일반 대중에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미적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적 판단을 위한 구체적이고 건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박윤석 객원기자(농학 석사과정) simon6903@dongguk.edu

절대적 '아름다움'은 없다

남과 다른 아름다움을 가진 진정한 내가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욕구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으로 판가름 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아름다움의 추구, 즉 '미'가 지나치게 정형화되고 있어 우리를 어지럽게 한다.

정형화된 미학의 기준

그렇다면 사람들은 미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시대가 변하면서 미의 기준도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통통한 몸매, 보름달 같이 둥근 얼굴, 초승달 같은 눈을 가진 이들이 미인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8등신의 환철한 키, 약간 마른 듯한 몸매, 작고 가름한 얼굴, 큰 눈과 오뎅 코를 가진 여성이 미인으로 환대 받고 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미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정형화된 미를 갖추기 위해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성형 중독증에 걸린 이들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수 차례의 성형수술로 인해 텔레비전 화면에 얼굴이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들(연예인)을 닮고 싶어한다. 미디어 산업의 발달로 연예인들은 대중들에게 우상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것은 대중들의 모방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중들은 '미'를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모습으로 국한시키고 그 범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의 의미

여성들이라면 한번쯤 다이어트를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요즘 들어 남성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비만의 문제(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날씬한 몸매를 만들려는 욕구가 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남녀를 불문하고 높아만 가고 있다.

원푸드(one food) 다이어트라는 것이 있다. 일정 기간 내에 한가지 음식만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죽음의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다이어트는 일정기간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는 것이다.

장기간 이런 방법의 다이어트를 지속하게 되면 영양실조와 함께 거식증, 폭식증과 같은 정신질환까지 야기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칫 생명까지 위협에 처하게 된다고 의사들은 경고한다.

그 뿐 아니다. 성형계(契)가 생겨난 만큼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그만큼 외적인 것을 성형수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성형수술 자체가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형수술에 대한 맹신은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어떤 한 대학생이 유방 확대수술을 하던 중에 사망을 한 경우도 있다. 또한 코를 높이기 위한 수술을 하고 나서 부작용으로 코가 무너지거나 모양이 뒤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듯 정해놓은 '미학'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수술을 하다가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학'의 다양성에 대해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학'은 상대적인 가치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미학'에 절대적 가치를 놓아두려 한다. 또한 자신들이 만든 절대적 가치의 범주 안에 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간다.

왜 자신을 일정한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가? 우리는 '미'를 추구하기에 앞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바꾸어 가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매력을 이끌어 내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아닐까.

미의 다양성 인정해야

지금처럼 정해놓은 미를 갖추기 위하여 성형수술에 매달리고 정형화된 아름다움이 진정한 '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우리는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을 때 진정한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미'에 절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각 나라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미'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더 이상 외모만 고치려고 하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이와 같이 고전 미학은 어디까지나 미의 본질을 묻는 형이상학이어서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초감각적 존재로서의 미의 이념을 추구하였다.

이에 반해 근대 미학에서는 감성적 인식에 의하여 포착된 현상으로서의 미, 즉 '미적 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 '미적 인 것'은 이념으로서 추구되는 미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의식에 비추지는 미이다. 그러므로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근대 미학은 자연히 미의식론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예술 작품이나 자연미를 향수할 때 우리의 의식은 사물에 대한 이해 관계 또는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독립되어 극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어떤 합목적성을 실현한다. 칸트는 그런 점을 분석하여 미의식을 '무관심성', '목적 없는 합목적성'이라고 특징지었다.

19세기 후반부터는 독일 관념론의 사변적 미학을 대신하여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사례를 근거로 하여 미이론을 구축해 나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페흐너는 '아래로부터의 미학'을 제창하면서 심리학의 입장에서 미적 경험의 법칙을 탐구하려는 '실험미학'을 주장하였다.

오늘날에는 또 미적 현상의 해명에 사회학적 방법을 적용시키려는 '사회학적 미학'이나 분석철학의 언어 분석 방법을 미학에 적용하려고 하는 '분석미학' 등 다채로운 연구 분야가 개척되고 있다.

오늘날의 미학의 대상은 미와 연관을 갖고 우리의 의식 속에 비추지는 모든 '미적 인 것'을 포괄한다. '미적 특성'(aesthetic property) 또는 '미적 가치'(aesthetic value)로서 매력적인 것, 우아한 것, 숭고한 것, 영웅적인 것, 비극적인 것, 추한 것, 천한 것, 익살스러운 것 등도 모두 해당된다.

결국 미학은 단순히 미에 관한 학문이 아니라, 인간이 주위에서 발견하고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 창조하고 예술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미적 가치의 전영역을 다룬다.

따라서, 미학은 공허하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이고 실천적인 학문분야이다. 일반 대중에게 문화와 예술에 대한 미적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적 판단을 위한 구체적이고 건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박윤석 객원기자(경철학 석사과정) choikwan@dongguk.edu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야생의 염소떼를 본다

문인수

작은 고깃배를 빌려 타고 섬을 돈다.
야생의 염소떼가 정말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초록의 무성영화 같은 움직임이
그런 비밀의 시간이 아득한 데서 가물가물거린다.
저 디딜 수 없는 고요가 염소들의 발이겠다.
대체 마음의 어디를 풀어 고삐 없는 것이며
또한 어떻게 제 눈썹 위로 올라가는 길을 찾아냈을까
섬에 도착하면 또 섬이 없다.
야생의 염소들만이 그 섬에 가 있다.

- 시집 '동강의 높은 새'
(세계사, 2000년)에서

문인수(1945-) 시인은 종종 길 위에 있고 풍경 속에 앉아 있다. 마음이 먼저 길을 떠나 몸을 이끄는 천상 길의 시인이다. 관광을 위해, 볼 일을 위해 길 떠나는 일은 드물지만, 시인은 그러나 결핍하면 길을 떠난다.

어느 날 길 위의 시인은 작은 고깃배를 빌려 타고 섬 주위를 돈다. 길이 끝나가는 지점에 섬이 있고, 섬은 자신을 빙 둘러 길을 낸다. 먼 길 한 개의 소실점으로 사라지지 않기 위하여, 섬은 수평의 둥근 길을 수없이 만들어 낸다. 그리고 섬은 야생의 염소 떼를 기른다. 염소 떼를 정말 수직의 벼랑 끝으로 올려, 풀이 아니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요의 밥을 먹이면서 기른다. 한 점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으려는 섬의 안간힘이다.

육식 없는 육식(고삐 없는 염소 떼들)을 발하여 섬을 지켜내려 한다. 야생의 염소 떼들도 섬의 마음을 깨달아 고삐 없이도 잘 길러지고, 제 눈썹 위로 올라가는 길도 잘 찾아낸다. 시인이 섬에 도착하면 섬은 없어지고, 시인이 섬이 된다. 시인은 섬의 마음으로 야생의 염소 떼를 기른다. 아니 고삐 없는 염소 떼들이 섬을 기르고 시인을 기른다.

결국 우리가 그토록 신봉하는 고삐나 시끄러움의 형식적 잣대로는 그 섬에 갈 수가 없다. 없는 마음의 마음짓장을 풀어 야생의 염소가 되지 않고서는 그 섬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때로는 단조로운 듯하면서 촘촘살인의 간결성을 드러내는 표현과 풍부한 서정은 김종삼이나 박용래의 맥을 이을 만한 정통 서정 시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강상운
시인, 동국문학인회 사무국장

중양도서관 신작도서



나를 복제한다면
알린 주디스 클로초크 지음 / 이한을 역
을유문화사, 2005

이 책은 작가 미상의 그림 '가브리엘 데스트레와 그 자매'를 소재로 한 역사예술품 미스터리소설이다. 저자는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이 그림에 매혹되어 10년간 관련 고문헌을 연구하였고, 탄탄한 역사적 고증이 이 작품을 읽는 즐거움을 더해준다고 하겠다. 16세기 말 화려한 프랑스 궁중생활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최근 확실히 역사 미스터리 붐이 일고 있다. 공전의 베스트셀러로 기록된 다빈치코드를 비롯하여 세 번째 비밀, 플라톤의 거장의 그림, 4의 규칙, 방각본 살인사건, 열녀문의 비밀 등 여러 작품들이 잇달아 발간되었으니 주욱 훑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퍼플라인 1, 2
보프람 플라이쉬하우어 지음 / 김정환 역
휴먼앤북스, 2005

'스퍼피'가 무엇인지 아시는지. 2005년 4월 황우석 교수에 의해 체세포 복제로 태어난 개의 이름이다. 과연 인간복제가 이루어질 것인가. 현재 과학의 발달속도로 미루어 짐작한다면 인간복제가 꼭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듯 하다. 이 책에서는 생명과학윤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쟁점에 관한 사항을 개념 정리와 아울러 문화 예술의 영역까지 시야의 폭을 넓혀 다루고 있다. 인간의 가장 간절한 희망이자 가장 어두운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는 인간 복제... 과연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간이 복제된다면 정체성의 정의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복제된다면, 나의 영혼도 두 개가 되는 것일까. 영화 '아일랜드'와 만화 '월광천녀'에서 다루고 있는 클론의 암울하고 잔혹한 이미지가 불현듯 떠오른다.



이순신 평전
박천호 지음
북하우스, 2005

'칼의 노래', '불멸의 이순신', '천군'...책으로, 드라마로, 영화로... 독도 문제 탓일까? 최근 이순신을 조명하는 열기가 뜨겁다. 불패의 리더십, 구국의 영웅, 애국과 충성의 영웅 충무공... 그를 추앙하고 완벽한 인간으로 신격화하는 요즈음 분위기를 이 책은 오히려 차분하게 인간적인 이순신의 모습을 사료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인간적인 비애와 약점을 극복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여 열악한 운명을 이겨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알게 될 때 그의 전과가 한층 더 빛나게 느껴질 것이다.

김태훈이 지은 '이순신의 두 얼굴'과 비교하여 읽는다면 한층 더 다양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토박이 곤충기
김정환 지음
진선출판사, 2005

우리 땅에 사는 토박이 곤충들의 생태를 사진과 함께 수록한 자료이다. 태어나서, 경쟁하며 살고, 사랑하고, 죽는 일련의 모습은 사람이 나 곤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오랫동안 곤충을 관찰하고 연구하며 사진을 찍어온 저자는 인간사의 축소판 같은 곤충의 삶에서 세상살이의 이치와 지혜를 배운다고 한다. 바구미, 메뚜기, 호랑나비, 무당벌레... 갖가지 곤충들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진과 흥미로운 관찰기를 읽다보면 어느새 자연과 떨어져 작은 벌레만 봐도 깜짝 놀라며 몸서리치는 우리의 습관도 고쳐질 수 있지 모른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아무래도...)

동국사랑의 한 길 걸어온 스승이시여 당신은 영원한 동국인입니다

당신은 떠나지만 당신의 '정'은 제자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편집자

끝없는 열정 속에 제자 사랑의 한 길이 있다



김혜영 교수
(이과대 생물학과)

금방이라도 이사 준비를 시작할 듯한 어수선한 연구실 한편에 수수한 차림에 두꺼운 안경을 낀 교수가 컴퓨터와 '씨름'하고 있다. 학생들이 마련한 고별특강을 위해 퇴임식을 이틀 앞둔 그날도 강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 김혜영(생물학)교수. 그녀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강의실에서 연탄을 때던 시절, 실험실에는 이마저 마련돼 있지 않아 학생들과 추위 속에 떨며 실험을 하곤 했지." 대학 시절 식물 유전학에 매력을 느껴 교수로 재직하는 28년간 오로지 감자 유전학 연구의 한길만을 걸어온 김 교수. 학생들 사이에서 '감자 엄마'로 통하는 그녀는 자신의 손을 거쳐 간 한명, 한명의 제자들이 소중하기만 하다. 실제로 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학생 중 일부가 학업과 인연을 끊고 학교를 떠날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했던 것이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 연구 환경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네." 떠나는 김 교수의 발걸음을 잡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남아 있는 학생들의 열악한 연구 환경이다. 그동안 경쟁 대학들에 비해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연구 환경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곤 했기 때문이다.

인생의 절반을 학문연구에 힘써오고도 떠나는 그녀에게는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모두 전달해 주지 못한 점이다. 교단에서 하지 못했던 모든 연구 결과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자 오늘도 밤낮없이 감자 유전학 책을 쓰고 있다는 김혜영 교수.

끝을 모르는 그녀의 열정에서 끝없는 제자 사랑의 마음을 읽어 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새로운 지식산업에 도전하는 자신감을 가져야"



박영길 교수
(법과대 법학과)

요즘은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예의 없는 행동을 해도 이를 꾸짖는 스승은 별로 없다. 이럴 때면 80년대 드라마 속 거침없이 꾸지람을 하던 '호랑이 선생님'이 그리워지곤 한다. 엄격함 속에 학생들을 향한 '애정'을 가슴 가득 품고 있는 호랑이 선생님, 퇴임을 앞둔 박영길(법학)교수가 바로 그이다.

"이 직업이 나에게 '딱' 맞는 것 같아.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고 싶다네." 지난 68년 시간강사를 시작으로 반평생 넘게 교단에 선 것이 만족스럽기만 하다는 박 교수. 37년 동안 연구하고 학생들과 호흡을 맞춰온 것이 이전 일상이 돼버렸다. "지금까지 출석을 부르거나 시험감독을 해본 일이 없어. 스승과 제자는 믿음을 기본으로 해야지." 신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만의 교육철학에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이 느껴진다.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법학을

향한 애정 역시 누구보다 각별한 것이다. "정보유통이 급속한 지금, 자신이 힘들게 얻은 기술이 쉽게 타인에게로 흘러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박 교수. 그는 13년 동안 '저작권법 심의조정위원회'를 맡은 것도 모자라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단체에서 일하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마지막까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지식산업에 도전하라고 당부하는 박영길 교수.

퇴임 후 그동안 보지 못한 책, 그리고 쓰지 못한 원고들과 늘 함께 살고 싶다는 그의 모습에서 소박하고도 따뜻한 열정이 묻어난다. 학생들을 향한 뜨거우 열정이 새롭게 시작될 그의 인생 속에 늘 함께 하길 기대해 본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퇴임교수 인터뷰

"시대 흐름보다 먼저 변화하는 모교되길"



정용근 교수
(경영대 회계학과)

주화물결로 뒤덮였던 80년대 교단생활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는 재직생활 중 잊지 못할 추억으로 단연 최후반 가스를 맡으며 강의하던 시절을 꼽는다. "착하고 성실한 학생들이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도중에 학업을 그만둬야 하는 일들이 무척 안타까웠지요." 그 때가 교수이자 선배로서 가장 가슴 아팠다고.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부터 걸어온 학문의 길은 자연스럽게 교수로 이어졌다. 그렇게 50여년동안 오직 한 길만을 택한 것은 이 분야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었다. "앞으로도 전공을 살려 기업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지요." 이렇듯 정 교수는 퇴임 후에도 전문가로서 사회에 봉사하는 일을 계속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학교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고 당부하는 정용근 교수. 그는 "젊은 학생들이 점점 작은 꿈을 갖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도전적인 꿈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다. 또한 100주년을 맞이하는 모교가 사회의 요구보다 더 앞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30여년 세월을 함께했기에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는 이별. 이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의 뒷모습은 아름답기만 하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고민하는 이들의 '등대' 되고 싶어



박준규 교수
(사범대 교육학과)

신의 의견을 교환하는 문화에 인색한 편이거든." 박 교수는 미국 유학 중, 자신의 의견을 스펀트없이 말하는 수업 분위기와 학생들의 모습에 매력을 느껴 이 같은 교육방식을 결심했다고 한다. 모든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지금의 사회가 요구하는 '리더십'을 길러주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제자를 하나, 둘 떠나보낼 때에는 누구보다 가슴 아파한 것이다. "사범대는 학생과 교수의 교류가 활발한 편인데, 상담을 받던 학생이 만류를 뿌리치고 떠날 때에는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학생을 걱정하는 스승의 애뜻함이 전해진다.

또한 모든 일에 항상 노력하면서 살고 싶다는 박 교수는 3년째 클라리넷을 배우며 예술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 학교에는 예술적 분위기가 부족해 예술 문화를 다양화시키고 싶다"며 최근까지도 수요일악회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고 있는 것이다.

퇴임 이후 말 못할 사정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찾도록 도와주는 상담자 역할을 해보고 싶으며 환하게 웃는 박준규 교수. 학교와 제자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하는 그의 얼굴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실용적 미술학문의 전파를 위해 쏟은 반평생



조승환 교수
(예술대 미술학과)

작업이 일상이었지.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네."

작품 활동과 후학을 양성하는 일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교수의 길을 택했다는 조 교수.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의 작품이 대외 공모전에서 수상할 때는 그 누구보다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던 것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가 왜 친구 같고 아버지 같은 스승으로 통하는지를 알 수 있다.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기에 지난 2001년 문화예술대학원장 시절, 미술치료학과를 개설하였다.

"학생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미술학문을 배우게 하고 싶어 설립했다네." 이과는 개설된 후 매년 100여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 문화예술대학원의 새로운 인기학과로 부상했다. 항상 실용적인 창의성을 추구하는 그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작품 활동과 가르침의 길에서 반평생을 걸어온 조승환 교수. 검은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동양의 '든든한 지킴이'로 살아온 그는 이제 잠깐의 휴식 후 작품 활동에 더욱 몰두할 예정이다. 코끼리의 아버지는 동국의 길을 떠나지만 그의 따뜻한 '동국 사랑'은 학교 곳곳에 언제나 남아있을 것이다.

(명)
brightah@dongguk.edu

2005학년도 2학기 신규교수



신 정 아
대학원 미술사학과 조교수

최고 전통의 대학에서 아름다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미술과 친구 되기 위해 서양화, 경영학과, 미술사를 공부했습니다. 금호미술관과 성곡미술관에서 지난 8년간 전시를 기획하며 미술과 일반인들의 소통에 노력해 왔고, 미술을 돌보며 지내는 행복한 시간들을 동국대 캠퍼스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캠퍼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양미술사 전공 △미국 University of Kansas 서양화 △미국 University of Kansas 경영학 석사 △미국 Yale University 서양미술사 박사 △성곡미술관 학예실장



안 홍 엽
이과대학 통계학과 조교수

1990년 대학생활을 동국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다시 동국대에 돌아왔습니다. 학창 시절 은사님들의 말씀은 제 인생의 커다란 이정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이제 감히 저도 제 후배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인간적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후배들에게 '아'라는 한 마디의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명나는 동국대에 참여하는 젊은 교수로서 가져보려는 꿈이요, 목표입니다.

△통계이론 전공 △동국대 통계학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통계학 석사, 박사 △미국 Wisconsin Madison대 Postdoctoral Research associate



강 재 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동국대학교 구성원이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영상 제작 PD 및 프로듀서로 방송 분야에 실무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정보통신학 석사와 방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방송사에서 전문연구원으로 그리고 국책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된 기업전략 및 법·제도를 연구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을 기대합니다.

△방송학이론 및 실습 전공 △연세대 독어독문학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정보통신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방송학 박사 △MBC 문화방송(주) 전문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고 봉 한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조교수

우리가 만약 어떤 대상을 마음대로 제어하거나 그 미래를 예측하기를 원한다면 그 대상의 고유한 특성을 사전에 정확하게 이해 또는 식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로봇일 수도 있고 자동차, 우주선, 분자조직 혹은 추가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저의 관심 연구 분야는 바로 이러한 제어, 예측, 그리고 식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창의적이고 실력 있는 기계공학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기계제어 및 자동화 전공 △성균관대 기계설계 △성균관대 기계공학 석사 △미국 Dartmouth College 기계공학 박사 △Rice대 포닥 연구원 △Washington대 연구원



윤 명 철
문과대학 사학과 조교수

역사와 사람, 역사와 미래, 역사와 문화 등의 관계성과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사를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와 우리 역사를 육지와 해양이라는 통일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해양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새로 맺은 인연의 씨앗이 아름답고 실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십시오.

△역사문화콘텐츠 전공 △동국대학교 사학 △성균관대학교 사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학과 겸임교수



최 봉 석
법과대학 법학과 부교수

여러분과 함께 행정법을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행정법을 공권력의 집행에 관한 법이라 한다면 이는 너무나 시시적이고 정치적이거나 그 어떤 영역에서도 직접 몸으로 체험되는 법입니다. 이제 그 행정법의 넓은 파노라마와 정치한 이론의 심연으로 깊이 한번 빠져봅시다. 행정법의 나무틀로부터 파릇한 잎들과 섬세한 실뿌리들까지를 탐미해가는 동안 거북처럼 당당해진 나뭇잎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시간들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 전공 △고려대 법학 석사 △독일 하노버대 행정법 박사 △고려대 공공행정학부 부교수



이 준 서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동국대학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변화와 개혁 속에서 동국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구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동국관 L동 412호로 오시면 학업문제나 인생상담뿐 아니라 맛있는 과자와 음료도 드실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 전공 △고려대 경영학 △미국 Syracuse대 재무학 석사, 경영학 박사 △매일경제신문 기자 △한국정보통신대 조교수



문 봉 교
정보산업대학 컴퓨터멀티미디어공학과 조교수

동국 100주년을 함께 맞이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석사, 박사과정에서 네트워크 분야 가운데 무선 인터넷, 모바일 컴퓨팅을 공부했고, 벤처기업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삼성전자 통신연구소에서 연구 개발 경험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강의실에서 또는 밤늦도록 연구실에서 보내게 될 값진 시간들을 통해 동국의 발전과 사회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산 산책로에서 문득 느끼게 될 동국의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유비쿼터스컴퓨팅/컴퓨터보안 전공 △서강대 전자계산학 △광주과학기술원(GIST) 정보통신공학 석사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무선이동인터넷 박사 △삼성전자 통신연구소 책임연구원



김 춘 식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흔히 모든 일은 처음의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동국대학교의 신규 교수로서 연구와 교육이 조화를 이룬 강의실,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후학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처음 학문과 교육에 뜻을 품었던 그때의 순수한 이상을 언제나 되새기며 학생들과 함께 미래의 이상을 공유하고 꿈꾸며 만들어 가는 진취적이고 실천적인 연구자, 교육자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힘든 일이 있으면 떠올리던 초보심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의 뜻 깊은 만남을 기대합니다.

△현대사론 전공 △동국대 국어국문학 석사, 박사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문학평론가



조 성 훈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안녕하십니까? 우선 학생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대학의 강단에 서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전공인 거시, 금융, 환율, 재부 경제학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열정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강의에 임할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예전과 다르게 경제학의 전문용어가 일반 신문 및 방송에 일상용어처럼 쓰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준이 높아진 경제학을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학생들이 실제 한국경제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서 경제학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시경제학 전공 △서울대 국제경제학 석사 △미국 Columbia대 경제학 석사,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원



신 한 승
생명자원과학대학 식품공학과 조교수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동국대학교에서 특히 식품공학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에서 교육과 연구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공하는 기능성식품 분야는 식-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특수 기능성소재의 연구-생산-산업화를 통해 인류의 기본적 생존과 복지의 향상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어 최근 들어서 그 응용가치와 학문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연구지식과 산업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정을 다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능성식품학 전공 △성균관대 낙농학 △미국 Michigan주립대 식품과학 석사, 박사 △CJ주식회사 소재 식품연구소 수석연구원



황 인 규
사범대 역사교육과 조교수

동국가족으로서 모교인 역사교육과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유정 무정 모든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100년 전통의 동국의 역사는 곧 근대불교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도 전통시대의 역사에서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불교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적 세계관, 즉 우리 공동체에서의 관계와 변화가 우리의 역사이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국의 역사학 및 불교사학의 비상을 위해 선배님들과 함께 웅망정진하겠습니다.

△여말선초시대사 전공 △동국대 국사교육 △동국대 사학 석사, 박사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홍 승 현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동국대가 100주년을 기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 모교의 강단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해 전에 유학을 마치고 처음 맡은 강의가 영국소설이었는데, 생전 처음 첫 강의를 마친 뒤에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허용하는 정말 보람되고, 좋은 일을 발견했을 때의 가슴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강단에서의 전문적 지식은 반드시 교수의 열정을 통해 재창조되어 학생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견해이고, 학생들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늘 따뜻한 마음과 무한한 애정을 간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영국소설 전공 △동국대 영어영문학 석사 △미국 Nebraska주립대 영어영문학 석사, 박사



최 응 렬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건학 100주년을 맞이하는 모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8년 6개월만에 모교로 돌아오니 먼 길을 둘러 제 길을 찾은 듯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사님들과 동문선배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찰학의 산실인 모교 경찰행정학과와 발전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와 동문간의 가교역할에도 더 헌정 노력하고, 후배 겸 제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경찰학 전공 △동국대 경찰행정학 석사, 박사 △계명대 부교수



박 장 서
공과대학 생명화학공학과 부교수

100년 전통의 동국대학의 가족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소속된 생명화학공학과와 발전과 동국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경주하며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분자생물공학 전공 △서울대 미생물학 석사 △미국 California Davis대 미생물학 박사 △두산바이오텍 연구소장



채 재 성
사범대 체육교육과 조교수

100년 전통의 사학 명문 동국대학교의 일원이 되어 교육과 연구에 정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전공은 스포츠사회학이며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로서 우선 좋은 교사를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동국대학의 모든 학생이 스포츠 활동을 즐기도록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스포츠사회학 전공 △영남대 체육교육 △서울대 체육교육 석사, 박사 △서원대 조교수

경주캠퍼스

- ▲이은주 △인문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사회복지방법론(사회복지조사방법론) 전공 △숙명여대 아동복지학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인간발달 및 가족학 석사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 사회복지학 박사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연구교수
- ▲배기수 △상경대학 회계학과 조교수 △재무회계 전공 △충북대 경영학 △한양대 회계학 석사, 박사 △서울벤처정보대 전임

- 강사
- ▲도경오 △의과대학 의학과(기초) 조교수 △생리학(세포생리학) 전공 △영남대 의학 석사 △경북대 의학 박사 △계명대 초빙전임 강사
- ▲김영성 △의과대학 의학과(경주병원) 조교수 △골절, 견관절 전공 △동국대 의학 △동국대 경주병원 임상전임교원
- ▲김광현 △의과대학 의학과(경주병원) 조교수 △근막·골절 전

- 공 △동국대 의학 △김천의료원 안과 과장
- ▲장재원 △의과대학 의학과(경주병원) 조교수 △피부과학 전공 △경북대 의학 석사 △안동의료원 피부과 과장
- ▲최중호 △의과대학 의학과(경주병원) 조교수 △재활의학과 전공 △동국대 의학 △동국대 경주병원 임상전임교원
- ▲백승덕 △의과대학 의학과(포항병원) 조교수 △소화기내과학 전공 △동국대 의학 석사 △동국대 경주병원 임상전임교원

- ▲임창균 △의과대학 의학과(포항병원) 조교수 △정형외과학 전공 △한림대 의학 △충양대 의학 석사 △서울직업직장병원 진료과장
- ▲박승복 △의과대학 의학과(포항병원) 조교수 △정형외과학 전공 △동국대 의학 석사 △동국대 경주병원 전공의
- ▲배준호 △의과대학 의학과(경주병원) 조교수 △순환기내과 전공 △영남대 의학 △동국대 경주병원 임상전임교원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2 FAX : 2279-1270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방중 다양한 국내외 프로그램 참가 수기

동문회 초청 북미주 연수

북미주에 세운 우리의 포부

삼천 미터 상공을 날아 시간의 경계를 넘었다. 불빛보다 따뜻하고 남디 단 꿀처럼 끈끈한 동문 선배님들의 손을 부여잡았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의 습기 없는 선선한 공기 속에서 웃으며 이야기했다. 낯선 이국땅에서 타인과 현재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 어찌 굉장하지 않을 수 있을까.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심장이 뿜 만큼, 동문 선배님들과의 만남은 너무나 뜨거운 것이었다. 고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그분들의 삶의 거리는 문제가 될 수 없었

다.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진한, 삶의 기운을 이국의 공간에서 흡수하고 있는 선배님들에게서 느낄 수가 있었다.

감사하게도, 우리들은 선배님들로부터 두레박으로 길어 올려지는 우물물처럼 찰랑찰랑한 동문의 힘과 애정을 받았다. 가슴 하나 가득 태양의 조각들을 품고 계신 듯한 선배님들의 마음이 앞으로 천천히 먼 길을 걸어 나가야 할 우리들의 발길을 환하게 밝혀 주었다.

나는 우리들 나이의 배를 뛰어넘는 시간의 추억을 공유하며 세상

우리가 이렇듯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것은 손에 쥘 상형문자처럼 선이 분명하고 결이 고운 기억으로 남았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뉴욕을 거쳐 워싱턴까지 크고 거대한 대륙을 보고 느끼며, 우리의 걸음걸이가 이토록 경쾌할 수 있다는 것이 신비로웠다. 타국의 땅은 깊고도 웅장했다. 매우 밝고 환한 공기를 뿜어내는 대자연의 경관은 기이하면서도 감동적이었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여행을 함께 한 스물 한 명의 희망과 포부는 북미주 대륙의 도로 곳곳에서 마주친 이정표처럼 굳건히 세워졌으리라고 나는 믿고 있다.

염승숙(예술대 문창4)

동국 해외탐방 프로그램

보스톤에서 느낀 한국의 불교

한 학기 내내 준비해서 간 미국이었다. 3인 1조인 우리 일행이 간 곳은 미국 중에서도 동부에 위치한 보스톤이었다. '젊은 세대를 위한 포교방안 모색'이라는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출발한 우리 일행은 보스톤에서 한국사찰인 문수사에서素食을 해결하며 케임브리지 센서터와 베레블교화센터, 보스톤불교문화원, 그 유명한 하버드대학도 탐방했다.

간단히 그 지역을 돌아보기만 한다고 탐방은 아니었다. 그곳 책임자를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제에 부합하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돌아다녔다. 주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도 좋았지만, 한국 한곳마다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 더 즐거웠다.

케임브리지 센서터에서는 해외포교로 이름이 높았던 송산스님

의 말씀을 따라 여전히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파란 눈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불교학도인 나보다 더 규칙적으로 수행하고, 바른 마음으로 생활하려는 그들의 태도에 큰 감동을 받기도 했다. 보스톤 불교문화원은 하버드대학 근방에 위치해 있었다. 무엇보다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식당과 서점, 법당이 함께 있는 복합공간이었다. 불교라는 것을 기도나 수행 뿐 아니라 불교서적, 음악, 음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베레블교화센터에서는 스미던턴을, 하버드대학에서는 참여불교전공의 QUEEN교수님을 만나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스톤의 마지막 탐방지였던 서운사에 들러 서공스님께 탐방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조언을 들었다. 불교는 인포메이션 센

터와 같이 각각의 정보를 줄 수 있는 즉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또한 스님께 현지 해외포교를 위해 힘쓰고 계신다는 뉴욕의 조계사 주지스님인 묘지스님을 소개받았다. 계획했던 일정에는 없었지만 뉴욕으로 건너가 찾아뵙기로 했다. 조계사는 뉴욕의 중심인 맨하튼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포교에 힘쓰시려는 묘지스님의 서원이 뉴욕 한가운데에 한국사찰을 세운 것이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불교적인 것이라며, 단청하나 창문의 문양 하나까지 한국사찰을 그대로 재현해 놓으신 것을 보니 자부심이 느껴졌다.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팀명이기도 했던 mindfulness(항상 깨어있음)을 마음에 새겼다. 항상 깨어있어서 나를 돌아보고, 또 주위를, 크게는 세계를 돌아보며 내가 더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승은(불교대 불교3)

일본 삿포로대학 학술문화연수

홈스테이 통한 일본 문화체험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일주일동안 일본 삿포로학원대학 학술문화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전체적인 일정은 일본 관광지 탐방도 있었지만 일본어 수업 참가 등으로 단순 관광이 아닌 학술문화연수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우선 일본에 도착하니 삿포로 학원대학 친구들이 공항에 나와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일주일 동안 같이 일정을 소화할 일본 파트너를 소개받았다. 첫날 총장을 만나서 프로그램의 취지를 들으면서

환영식을 마치고 홈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나의 파트너의 집인 친구집에 갔다. 친구의 집은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다다미방이었고 이를 동안 신세를 졌다. 나머지 이들은 삿포로 현지 사람들의 집에서 홈스테이 하는 것이었다. 삿포로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서로 외국인을 자기 집에 초대하려고 해서 외국인이 편하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4일을 일본 현지인의 집에서 생활을 같이 한 것이었다. 숙박이라는 작은 부분에서 수

있듯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일본의 문화를 몸소 체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일본에 배낭여행 간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 연수만큼 일본의 문화를 느끼지 못했다.

그 전 여행은 단순히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가고 관광안내 책자에 나온 식당을 가는 등의 피상적인 일본문화였고, 이번 프로그램은 서로 생활을 몸소 체험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필자에게 일본 문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일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서용근(공과대 기계공2)

한국노동교육원 공동주최 취업현황 캠프

“취업아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지난 7월 14일부터 1박 2일간 동국대학교와 서울 강남종합고용안정센터 연계로 개최된 '성공하는 취업면접 캠프'는 취업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보와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진로교육상담팀의 단기 제공 프로그램이다.

삼성 SDS 인사팀 김영수 과장님과의 '2005년 하반기 기업채용 동향'에 대한 좌담을 통해 흥미 있는 정보와 더불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을 하나둘씩 얘기해나가는 학생들은 시종 진지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특히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이해와 더불어 기업문화와의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조언은 너무나 가슴속에 외닿는 지표임에 분명했다.

연이여진 우리들의 행보는 토론면접장이었다. 조별로 제시된 주제에 대한 자연스런 찬반 토론과 이

를 면접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4조의 주제는 '청소년 성범죄자 명단 공개'였다. 토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자세에 있으며, 지나치게 토론을 독점하려는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드디어 이번 캠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면접실습 시간이 다가오게 되었다. 정장을 입고 준비하는 참가자 모두의 모습 속에서 뉴스로만 접했던 '면접장'에 관련된 긴장과 어색함을 엿볼 수 있었다.

"what is your strength for vacant position at our company?"라는 질문에 답변했었던 영어면접과 "당신 말고 나머지 사람 중에 한사람을 뽑으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이 나왔던 개별 면접 등은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라는 격언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으며, 무엇보다 면접관의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종 긍정적인 인상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본교 출신 동문들의 취업준종의 하나라는 프리젠테이션 면접 부분은 무엇보다 주어진 제한시간 안에 얼마만큼 자신 있게 자신의 주장을 간결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의 중요함을 실습할 수 있었다.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2일간의 취업캠프는 수료식과 더불어, 그리고 내가 속한 4조가 면접관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1등이라는 영예를 차지함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취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참가자 모두의 가슴속에 담고 있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야 한다'는 것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이번 캠프에서의 경험은 분명 지속되는 무더운 여름을 뛰어넘는 무한한 열정을 고취시켜 주리라 자신해 보며, 이런 기회를 주신 학교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송재훈 (사과대 경제4)



논단

박광재
문화일보
스포츠부 차장

언젠가 한 친구가 뜬금없이 '우리나라에서 단 한 사람의 반대없이 지지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답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친구는 자신이 정치를 했다면 '독도는 우리 땅 당(黨)'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집권하는 것은 시간 문제란다. 그럴듯 하다.

그래서 필자는 '축구당은 어떻게?'고 한소리를 더해 본다. 축구만큼 내셔널리즘이 강한 경기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그 친구는 '축구당'은 안 된다고 한다. 이유인즉 '요즈음 축구판, 특히 감독들의 무덤이 되다시피한 한국축구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 같다. 더욱이 대한민국 사람, 그 중에서도 절반의 남자들 대부분은 축구에 관한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지금 '축구

'냄비'가 만든 감독 무덤

당'은 태도 없는 얘기라는 것이다.

그렇다. 또 한명의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민국 절반이 넘는 축구 전문가들의 여론에 밀려 또다시 중도하차했다. 본프레레 감독의 경우 자진사퇴하지만 여론에 밀린 불명예 퇴진이다.

2002 월드컵 4강 달성이라는 뚜렷한 족적을 남긴 거스 히딩크 감독의 뒤를 이었다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1년여 만에 경질된 율베르투 코엘류 감독과 같은 경로를 본프레레도 밟은 셈이다. 코엘류, 본프레레 감독의 잇단 퇴진으로 한국 축구대표 감독직은 독배(毒杯)이고 '감독들의 무덤'이란 말이 나오게 됐다.

물론 4강 신화를 이뤘던 '한국축구대표팀' 사령탑을 맡은 감독으로서 감내해야 할 책임의 무게는 크다. 본프레레 감독은 월드컵 본선 6회 연속진출이란 성과를 거두었지만 팬들의 신뢰를 잃었다. 그동안 그를 둘러싸고 선수파 악과 선수기용, 전술전략, 그리고 자기색깔 미흡 등 비판이 계속됐다. 답답한 졸전은 경질론을 확산시켜왔다. 어쨌든 거센 비난 여론에 비취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설명도 나올 만하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감독 한사람에게만 둘

릴 수는 없다. 본프레레의 퇴진은 '월드컵 4강' 이후 흔들리는 대표팀과 한국의 축구문화를 다시금 생각해 한다.

어떤 이는 "본프레레 감독의 결정적인 불운은 초딩(초등학교)과 중딩(중학생)들이 방학중에 사우디아라비아전을 치렀다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방학기간 컴퓨터 앞에서 푹푹거리며 감정에 치우친 글을 올린 게 본프레레 사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극단적인 지적이다.

그의 분석이 꼭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본프레레 감독이 물러나기까지 책임지지 않는 이름의 사람들이 올린 인터넷에 올린 다수 비판의 글이 적지 않은 힘을 발휘한 것은 사실이다.

팬들의 반 본프레레 정서는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됐고, 결국 축구협회 기술위원회는 그의 사퇴를 수용했다.

한 경기 한 경기에 일희일비하는 대한민국 축구 문화, 쉽게 달아 오르고, 책임지지 않는 이명성의 여론 등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직을 '무덤'으로 만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동국 히노애락

우리학교가 내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는다. 이에 지난 동국역사 속에서 히노애락을 살펴보고 100주년을 준비해 편집자



▲ 최초의 졸업장

▲ 명진학교 설립에 관한 내용

▲ 학생모집 통문

① 동국대의 첫 이름 명진학교 설립

1900년대 초반, 일본은 제국주의를 앞세워 점차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침략은 정치와 군사뿐만 아니라 종교·문화 분야에도 일어났다. 삼국시대 이후 호국정신의 지주 역할을 해왔던 불교계는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고, 민족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근대적인 불교교육제도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불교교육기관 명진학교다.

명진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이전 불교교육제도 하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이었다. 이들은 속식과 교재와 학습품 일체를 지원받으며, 불교계의 개혁 엘리트로 교육받았다. 이러한 민족과 불교계의 기대 속에서 학생들은 신학문 수용에 엄청난 열의를 보였다. 또한 끊임없이 가해지는 내외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불교정신의 개혁자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갔다.

독자 사진첩



타지마할 ... 지난 여름방학 동안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멋진 풍경 사진을 혼자보기도 아까웠습니다. - 강건욱(인철4)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4매 분량의 글을 여론연에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보리소

차군에게

지난 여름 카트만두의 그 혼잡한 거리에서 차군을 만났을 때 그 날 차군의 티셔츠에 적혀 있던 문구가 유난히 포뿔하게 기억나는군요. 그건 바로 '카르페 디엠'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현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준 대사로 유명하지요.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학하기에 앞서 내팔과 인도를 여행 중인 차군을 보면서 아주 적합한 문구를 가슴에 새기고 왔다는 생각에 내심 감탄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를 즐겨라'라는 뜻으로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 문구는 직역하면 '시간을 움켜쥐어라'라고 해야 되겠지요. 나는 즐기라는 말보다 움켜쥐라는 쪽이 그 뜻을 더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을 의미하는 인도의 '아디(adi)'라는 말 역시 '잡다(暇)'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로 눈을 돌리면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그 실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언제가 끝일까요. 애초부터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상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역사의 주체이고,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본질로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꿈틀거리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인식하는 일. 그것은 바로 시작도 끝도 없이 망망하게 펼쳐져 있던 저 거대한 공간이 최초의 숨을 토해내는 일입니다.

이제 차군은 긴 여행에서 돌아와 새로운 삶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작!'이라는 구호를 외쳐야 할 순간입니다. 나와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저 우주의 흐름 속에서 손을 뻗어 시간을 움켜쥐십시오. 굳게 움켜쥐고 외치는 저 '시작!'이라는 고향으로 시간은 시작되고 존재가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태초의 주인공이 되어 삶을 호명하기 바랍니다. 차군의 건투를 빕니다.

이 미령
역경원 연구원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9/5)	부대찌개 (1800) 간풍기 (2000) 오징어소면우침 (2000)	순만두국 (2000) 제육볶음 (2000) 치킨볶음밥 (1800)	민장찌개 (3200) 날치알술밥 (3500) 닭조림 (3500)
화 (9/6)	설렁탕 (2000) 제육갯잎볶음 (2000) 카레볶음밥 (1800)	돈갈비김치찌개 (2000) 떡볶고기 (2000) 콩나물비빔밥 (1800)	민장찌개 (3200) 육개장 (3500) 해물덮밥 (3800)
수 (9/7)	순두부찌개 (1800) 해물간짜장 (2000) 불고기비빔밥 (2000)	닭곰탕 (2000) 참치김치볶음밥 (1800) 돈육강정 (2000)	민장찌개 (3200) 떡볶이불고기 (3800) 이면수국이 (3500)
목 (9/8)	김자랑 (2000) 참치분류볶음 (1800) 짜꾸미불고기 (2000)	쇠고기국밥 (1800) 카레라이스 (2000) 닭도리탕 (2000)	민장찌개 (3200) 돈가스 (3500) 산채비빔밥 (3500)
금 (9/9)	육개장 (2000) 닭갈비 (2000) 회덮밥 (2000)	비지락수제비 (1800) 라소죽 (2000) 오무라이스 (2000)	민장찌개 (3200) 설렁탕 (3500) 낙지볶음 (3800)

■ 금주의 추천메뉴 ■

산채비빔밥 (교직원 목요일 석식)

스님들이 산나물을 뜯어다 옛날부터 드시던 것이 산채비빔밥이다. 사람의 혈류작용을 원활하게 하는 나물을 푸짐하고 다양하게 넣어 향토적 입맛에 맞게 준비했다. 안순실 (상록원식당 영양사)



- 베트남 문화유적 답사 특집 -

우리학교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활)이 주최한 '베트남 생활 문화유적 답사'가 지난 6월 21일부터 5일간 진행됐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와 호치민 박물관, 하롱베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답사에는 교수 3명, 생활직원 및 교직원 9명, 대학원생 2명, 학생 10명 등 총 24명이 참여했다.

편집자

때묻지 않은 소박함이 아름다운 곳

비행기 문을 나서자마자 후텁지근한 바람이 온 몸을 에워싼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5시간이면 갈 수 있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그곳에는 없는 것이 많다.

우선 산이 없다. 오래 전부터 형성돼온 삼각지이기 때문에 강한 햇빛 외에 시선을 가로 막는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강한 자외선을 차단해 줄 산이 없어 알 부화율이 낮으며, 일하는 남자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베트남이 철저한 모계중심사회이기 때문이다.

자연에서 여유를 즐기는 '물'의 사람들

중국을 기준으로 '편안한 남쪽'이라 불리는 하노이는 홍강으로 둘러싸여 강 안쪽이란 지명의 유래를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이곳에서는 유난히도 '물'의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다.

가장 처음 하노이 물의 매력을 알게 해준 '땀땀'. 땀땀은 난민 호아 루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볼 수 있는 동굴이다. 방금 깎은 연필처럼 가파르게 솟은 산들 사이로 물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 물은 마치 율활을 하듯 자칫 삭막해 보일 수 있는 거친 바위산들과 그렇게 절묘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 동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가로운 배를 짓는 뱃사공의 모습이다. 대나무를 모아 만든 삼판대 위에서 의연한 자세로 노를 짓는 사공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정말 물과 가깝게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높게 자란 물줄기를 가로 지르며 떠가는 배에 앉아 있노라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하지만 1시간가량을 그늘 하나 없는 배 안에서 보내는 동안 일행들은 하나, 물 지루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뱃사공은 풍우리가 채 열지 않은 연꽃으로 '연꽃목걸이'를 만들어 주며 환하게 웃는다. 순간 땀땀이라는 현대 문명에 싸여 느낌이 주는 미학을 잊고 산 듯한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들의 삶의 '여유'는 상인들의 모습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호안끼엔호수 옆에 위치한 36거리의 하노이 최대 번화가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물건을 판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이곳은 언뜻 우리네 남대문과 비슷해 보이지만, 언더지 모르게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손님이 와도 멀찌감치 지켜보지만 하는 그들은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다. "아직 서비스의 개념이 발달하지 않은 것 같다"는 한 참가자의 말처럼 이곳 베트남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치열한 서비스 경쟁의 현장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

땀땀에서 느낀 여유로움이 자연과 함께하는 베트남 사회를 보여주었다면, 수상인형극은 물을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강물이 넘친 논이나 강, 호수에서 유래한 놀이라고 한다. 아마도 우리의 탈춤 놀이와 비슷한 맥락이 아니었을까.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는 농부들의 생활상을 그린 인형극은 악사들의 노래 소리와 어우러져 맛깔나게 표현된다. "배우들은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 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공연연습을 해 상체에 비해 하체가 굵다"는 현지 관계자의 말을 들으며 베트남에서 수상인형극은 전통 그 이

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생활에 벤 전쟁의 아픔 넘어 미래로

이렇게 우리네 7, 80년대와 다를 것 없는 문화를 안고 사는 듯 해보이지만,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이를 단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곳이 호치민 묘이다. 광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웅장하지만 리만큼 거대한 구조물은 호치민이 베트남 국민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한다.

러시아의 레닌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방부 처리 된 체 보존되고 있는 호치민의 시신. 이를 보기 위해 들어가는 길에 일행 모두는 그 엄숙함과 경건함에 말을 잊지 못했다. 후텁지근한 바깥과의 온도 차이와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누워있는 새하얀 얼굴의 호치민 시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뤄 오싹함마저 덜게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베트남에는 모든 풍경들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영화 인도차이나의 배경이 되기도 한 하롱베이는 많은 섬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어 도저히 섬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선실을 나와 뱃머리에 기대어 점점 다가오는 하롱베이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자연의 신비함에 빨려들 것만 같다. 티토프 섬 전망대에 올라 보니 크고 가파르게만 보였던 하롱베이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첩첩히 쌓인 바위산들을 보자 베트남을 침략한 몽골군이 이곳에서 크게 격침당했다는 전설이 떠올랐다. 아득다워 보이기 만한 이곳도 베트남 전쟁의 아픈 기억이 깃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밀려온다.

유난히도 베트남에서는 치아가 검은 할머니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짜오까이라는 열매를 먹어서라고 한다. 짜오까이는 전쟁 중 곱탈을 방지하기 위해 여자들에게 먹인 열매이다. 새삼 이번 여행 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베트남 전쟁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한국전쟁의 주요 무대였던 중부지방과는 달리 우리가 여행한 북부의 하노이에서는 전쟁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베트남하면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베트남 전쟁'을 생각한다. 이번 여행에서도 일행 대부분은 "베트남 사람은 우리를 생각하나요?"였으니 말이다. 지난 세월의 한 부분이 라고 생각했던 베트남 전쟁. "짜오까이"라 불리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네 위안부 할머니가 떠올라 그 때의 아픔이 가슴 깊이 전해져온다. 하지만 이제 베트남은, 그리고 우리는 전쟁의 상흔을 잊고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 중국 항일유적 탐방 특집 -

국가보훈처와 문화일보에 지난 7월 31일부터 5박 6일간 대학 학보사 기자 40명을 대상으로 '중국항일운동사적지 탐방'을 개최했다. 올해로 광복 6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탐방은 순국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봄으로써 젊은이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애국심 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것으로, 우리 신문사 기자도 참가해 뜻을 함께 했다.

편집자

60년 전 아픔이 그대로 전해오다

"와, 중국 땅이다!" 인천서 한 시간 반 비행기 길인 상해는 그리 먼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드넓은 땅에서 느긋하게 자전거를 타는 여유로움이 있었다. 산이라고는 없는 넓은 평지에 하늘을 찌를 듯 높게 서 있는 빌딩들. 상해는 발전하는 중국, 그 자체였다.

이 타국 땅에서 60여년 전 우리의 독립투사들은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했다. 지금 막 발을 디딘 낯선 나라 중국에는 이렇듯 타국에서 독립을 외칠 수밖에 없던 우리 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는 중국내 독립운동의 그 첫 번째 흔적이다. 복잡한 도로가에 3층짜리 벽돌집으로 남아있는 임시정부 청사는 비록 초라하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보여준다. 평범한 가정집과 다를 바 없는 이 자그마한 공간에서 조국의 독립을 논의한 투사들을 상상하니 가슴이 떨린다. 하지만 작은 문패만이 달랑 이곳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의 소중한 공간이 잘 보존되고 있지 못한 것만 같아 아쉽다.

소중한 우리유산 보존 부실해

임시정부를 떠나 밤늦게 도착한 연결. 상해보다 한참 북쪽인 이곳에는 벌써 선선한 바람이 분다. 연결에서는 상해와 달리 시가지에서 한글간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가이드는 "이곳은 조선 연변 자치 기구이기 때문에 간판에 한글을 달아줘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다"고 덧붙인다. 낯선 땅에서 만난 우리 동포들과 한글이 반갑다.

다음날,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많은 비와 함께 우리를 반겼다. 50여분 가량 빗속에서 계단을 오르니 광활한 천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북한과 중국에 걸쳐있는 백두산은 높은 봉우리만도 16개나 돼 그 거대한 규모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어떻게 이뤄낸 광복의 결과가 분단이라니. 언제쯤 우리 땅에서 자유롭게 백두산을 오를 수 있을까." 천지물이 폭포가 돼 흐르는 장백폭포의 아름다움을 뒤로한 채 산을 내려오는 길에 누군가가 주절거리는 이 말이 우리 민족 전체의 아픔으로 들려온다.

탐방 3일 째 우리가 찾은 곳은 연결 아래에 위치한 용정시이다.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인 1919년 3월 13일, 이곳에서 반일시위가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3.1운동에 뒤이어 중국 조선족이 일으킨

것이다. 지금도 용정시 합성리에는 그 당시 일제에 의해 숨진 사람들의 무덤이 남아있다. '용정 3.13 기념사업회' 회장 최근갑씨는 "지난 89년부터 유해 조사 발굴을 시작해 미약하나마 지금의 묘소를 갖추기까지 많은 이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고 말한다. 정부에서조차 관심 갖지 않는 일을 머나먼 이국땅에서 해내느라 고생한 사람들을 생각하니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정부의 손길이 절실해 보인다.

눈 앞에 펼쳐진 분단의 비극

북한과 중국의 국경에 자리 잡은 도문시는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로 흐르는 도문강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 오자 북한 땅이 바로 앞에 보인다. 북한으로 연결된 저 다리를 건너면 좋겠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 막는다. 통일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이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김좌진 기념소에서 그의 손녀 김을동씨를 만날 수 있었다. 국가보훈처와 '사단법인 김좌진장군사업회'가 주최하는 '청산리 구국대장정'을 밟고 있던 그녀는 "중국에서 한국인 개인 기념관으로는 김좌진 기념소가 처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란 조선족 동포를 위해 이곳에 더욱 많은 기념관과 문화관을 지어야 합니다."라며 조선족 역사교육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8월 5일, 마지막 탐방지는 731부대 유적지였다. 731부대는 1932년 일본 육군참모본부의 '이시이히로'가 생물 무기를 만들기 위해 계획한 부대로, 한국인·중국인·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이 자행된 곳이다. "사람을 '마루타(나무)'로 부르며 잔혹하게 실험하고 죽였다"는 안내원의 설명이 없더라도 전시돼있는 삼십여가지의 인체 실험 기구는 그 잔학성을 보여준다. 탐방단의 한 일원은 "남이 있는 건물전경과 보일리쉬를 보니 당시의 끔찍함을 알 수 있겠다"며 안타까워한다.

선열들의 발자취를 모두 따라잡기에 5박 6일이라는 시간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주최 측의 빠박한 일정은 '명목상의 탐방'에 머무르는 것 같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광복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독립투사들의 숨결은 잊지 못한다. 우리는 그 뜨거운 감동을 소중한 가슴에 담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다.

<명>
brightah@dongguk.edu

① 3천 여개의 섬들로 이뤄진 하롱베이의 모습.
② 난민마을에서 땀땀동굴로 가는 길.

③ 백두산 천지로 올라가는 계단.
④ 탐방에 참여한 대학생 기자단.
⑤ 백두산 천지의 모습.

우리학교 농구부 최희암 감독 인터뷰

“또 한번의 ‘동국신화’는 멀지 않았다”



90년대, 대학 농구팀으로는 처음 2년 연속 농구대잔치 우승을 거머쥐며 농구계에 ‘신화’를 물고 있던 연세대 농구팀. 이상민, 우지원 등 오빠부대를 몰고 다닐 정도로 그 당시 큰 인기를 모았던 선수들 뒤에는, 때로는 냉철하게, 때로는 아버지 같은 자상함으로 선수의 능력 하나, 하나를 놓치지 않는 한 감독이 있었다. 지난 5월 우리학교 농구부의 사령탑에 오른 최희암 감독이 바로 그이다.

또 한번의 대학 농구계의 신화를 위해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쏟고 있는 최 감독을 만나 현재 선수들의 기량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우리학교 농구팀을 맡게 된 계기는.
= 오랜 대학농구 생활 이후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프로 농구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실패로 많은 것을 깨달았으며, 다시 대학 농구에 복귀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다. 그때 마침 동국대에서 감독직 제의를 해왔다.

동국대 농구팀이 현재는 대학 농구계에서 하위권을 달리고 있지만 좋은 선수들의 스카웃, 단단한 팀워크 등을 다진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 생각한다.

그러한 가능성이 매력으로 다가와 다시 한번 대학 농구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자 하는 열의가 생겼다.

- 현재 우리학교 선수들의 기량을 평가한다면.
= 그동안의 저조한 성적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선수들이 자신감을 잃은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집중력 부족 등으로 기본적인 슛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실수는 곧 저조한 점수와 성적을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부진한 성적을 선수들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경쟁 대학들에 비해 지나치게 열악한 선수들의 연습, 생활환경 역시 이 같은 결과에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 체육부의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우리학교의 체육부와 관련된 전반적인 시스템은 전문적인 선수들을 위한 것보다는 일반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시스템은 운동부 선수들의 스케줄에 맞춰 일반 학생들의 체육관 수업 일정을 짜는 일부 대학들에 비해, 일반 학생들이 체육관을 이용하지 않는 남은 시간을 활용해 연습을 해야 하는 상황만을 보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오전에는 체육관에서 일반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 진행되고 6시 이후에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수업

들이 진행돼 실질적인 연습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더해 각 운동팀별로 식단이나 연습 환경 등에 특색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선수들의 기숙사 역시 많게는 6명의 학생들이 한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큼 큰 불편함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 성적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의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선수들을 근성과 열정이 있는 팀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이 지금의 최대 목표이다. 어느 정도 팀이 안정되면, 적극적으로 포지션 별 우수 선수들을 스카웃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부합된다면 전력 상승은 자연히 따라올 수 있는 결과라 생각한다. 이달 말에 열리는 대학 연맹전, 12월에 있는 농구대잔치 등에 참가해 우리 팀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가능성도 평가해 볼 것이다. 선수와 감독, 학교의 노력이 함께 할 때 또 한번의 ‘동국 신화’는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인물동정

사학과 이기동 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선출



우리학교 사학과 이기동 교수가 지난 7월 15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선출됐다.

대한민국 학술원은 학술발전에 공적이 있는 전국 150명의 학자를 선출해, 학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국내의 학술교류와 학술행사 등을 진행하는 국가기구이다. 이번 선출은 우리학교의 양주동, 황수영 박사 이후 3번째로 이뤄진 것이며 이 교수는 인문사회과학 분과 역사학 분야에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기동 교수는 “국가에서 인정받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 선출된 것인 만큼 열심히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국범죄학회 초대회장에
경행과 이윤호 교수 선출



우리학교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가 지난 달 23일 한국범죄학회 초대회장에 선출됐다.

이에 대해 이윤호 교수는 “지나치게 세분화돼있는 기존 학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범죄를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학회를 설립하게 됐다”며 “학회에 속한 젊은 학자들의 열정이 큰 만큼 출발은 늦었지만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 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앞으로 해마다 2회 이상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외국 스타 강연자를 초청 하는 등의 활발한 활동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송목 동문
타임스페이스 사장 취임



우리학교 최송목 동문이 지난달 24일 국내 최대 스포츠 포토 에이전시인 타임스페이스 신임 사장으로 선출됐다. 최 동문은 국민은행과 교보증권, 한국교육미디어 대표를 거쳤고 한국 영재단 단장, 출판문화협회 이사를 지낸 바 있다.

우리 신문 기획부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상록원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선배를 만나다

“부당한 사회 대면해 나갈 것”

“나로 인해 함께 활동하던 후배들과 가족까지 피해를 입어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한강 월드컵 열기로 온 국민의 관심이 높아가던 2002년 여름. 한 학생 대표자는 ‘수배자’라는 굴레를 안은 채 학교 안에서 숨죽여야 했다. 98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 이적 단체로 규정된 이후 한총련 소속 대학의 단과대 학생회장, 혹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모두 수배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당시 경영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유영빈 동문 역시 이 같은 역사의 굴레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활동의 폭이 학교 안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사소한 일까지 내 손으로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도 많은 활동을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실제로 유 동문은 경영대 학생회장을 거쳐 2003년에는 우리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했다. 때문에 수배 생활로 자유롭게 학생들을 위한 활동을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졸업한 한 지금에도 가슴에 크게 남아 있다고 한다.

“요즘은 학생운동이 소수 학생들만의 활동이 된 것 같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 갓 입학해 참여한 집회 현장에서 함께 시위에 참가했던 한 학생이 진압에 목숨을 잃는 현장을 목격한 후 본격적으로 학생회 활동과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됐다는 유영빈 동문. 현재의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학생운동이 사회적인 담론 이외에도 요즘 학생들이 고민하는 학업, 취업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열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그런 그가 지난 8월 15일 광복절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기도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번 해 광복절 특사로 수배가 해제돼 4년간 그의 몸과 열정을 감싸고 있던 굴레를 벗어 던지게 된 것이다.

“아직까지도 정신이 없다. 학교 안에만 있다가 바깥세상으로 나오니 모든 것이 새롭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하인사를 건네곤 해서 여전히 좀 얼떨떨한 것이 사실이다.” 학교 안에서 생활했던 시간이 컸던 만큼,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마음이 컸던 만큼 유난히도 그의 수배 해제를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한총련 수배 해제된 유영빈(경영 05졸) 동문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자유’를 얻은 해방감에 기뻐만 하고 있기에는 해야 할,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 사회적으로 약자에 위치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에게 앞으로 배우고 부딪쳐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바쁘게 부당한 사회 한 가운데서 ‘삐딱한’ 시선을 보내고 있을 그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리서치

목요일 1시 상록원에서는...

“방학동안 어떤 활동에
주력하셨나요?”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더위가 가고 하늬바람이 불어오는 9월, 새학기가 시작되고 동국인의 지칠 줄 모르는 수다에 음악이 들썩거린다.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 우리 동국인들은 긴 방학을 어떻게 보냈을까.

개강을 맞아 우리 신문에서는 동국인 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방학동안 무슨 활동에 주력했나’를 주제로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중 84명(42%)이 학업에 매진했다고 답했으며, 42명의 학생이 여행(21%), 41명의 학생이 아르바이트(20.5%)라고 응답했다. 또한 34명의 학생은 연애(17%)라고 답해 비교적 고른 분포결과를 나타냈다.

- 기탁 의견 -

- △ “광주에서 금강산까지 국토대장정에 다녀왔습니다” - 양지훈(법2)
- △ “개강 4일전까지 군대에 있었습니다. 적응이 안돼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우호균(정산대1)
- △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인 학교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 최근영(법2)
- △ “서울랜드에서 놀이거구 타다가 고소공포증 때문에 거품물었습니다” - 김훈수(경영4)

제24회 명찰순례개최

바람결에 스쳐가는 들꽃 내음과
눈부신 햇살 위로 높이만 가는 하늘을 보며
어느 새 가을이 성큼 찾아 온 것을 느낍니다.
황금 들녘을 바라보는 농부의 넉넉함처럼
여유와 나눔의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떠납니다.
조계산의 빼어난 정기와 어머니의 품속 같은
호남평야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
송광사와 금산사로의 기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1. 순례일자 : 2005. 9. 9(금) ~ 9. 10(토) <1박2일>
- 2. 순례장소 : 송광사(숙박) / 금산사(방문)
- 3. 참가대상 : 전 동국인(45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 4. 참가비 : 일만원 (참가자 전원에게 합창주 제공)
- 5. 접수기간 : 2005. 9. 1(목) ~ 9. 7(수)
- 6. 접수처 : 본관 학생복지실(☎2260-3048)
- 7. 출발일시 및 장소 : 2005. 9. 9(금) 오후4시, 정각원 앞

학 생 처

제1기
전통사찰음식조리강좌
수강생 모집

- ◆ 강 사 : 선재스님(사찰음식연구가, 가정교육과 객원교수)
- ◆ 교육기간 : 9월 14일 ~ 11월 23일(10회) 매주 수요일 10:00 ~ 13:00
- ◆ 대 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선착순 80명
- ◆ 진행방식 : 이론 + 조리실습 + 시식
- ◆ 교육장소 : 학림관 조리실습실(사범대 1층)
- ◆ 수강료 : 70,000원(재료비 포함)
- ◆ 접 수 : 9월 1일(목) ~ 13일(금) 여학생실

문의는 여학생실(☎ 2260-3058, gender@dongguk.edu)로

여학생실 · 가정교육과

* 초대합니다 *

제8회 송편배우기 & 사랑나누기

송편 빚기를 익히며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정성껏 만든 송편을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하여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예쁜 송편을 빚은 학생에게는 시상의 기쁨까지.

본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추석의 의미를 나누면서
보람있고 뜻깊은 추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프로그램◆◆◆

시 간	순 서
10:00 ~ 10:10	인사말 · 행사진행안내
10:10 ~ 10:30	추석의 의미 · 떡에 관한 설명 및 시연
10:30 ~ 15:30	유학생과 함께 송편빚기
15:30 ~ 16:00	예쁜 송편 시상 · 송편전달

* 시상내역 : 으뜸상, 버금상, 아차상, 끈기상

일 시 : 2005. 9.14(수) 10:00 ~ 16:00
장 소 : 계산관 앞마당(사범대 옆)
주 최 : 여학생실(☎ 2260-3058)
후 원 : 참가자봉사단

문화단신

동국 락 뮤직 월례 세미나 열려

목격가요제 예선접수

'현여울' 정기연주회

제1회 목격가요제가 건학 100주년을 맞아 다음달 5일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예선접수는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학생복지실·교육방송국·예술대 행정지원실에서 받는다. 휴학생, 2006 수시 합격생 등 동국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솔로·듀엣·그룹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한편 우리학교 클래식 동아리 '현여울'이 제24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10일 오후 6시 30분 본관 중앙당에서 개최한다.

지난 대동제 때 열린 '락 페스티벌'은 모든 동국 구성원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였다. 특히 이날 공연은 '락'을 좋아하는 소수의 매니아층을 넘어 모든 이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자리로 더욱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흐름을 이어 '동국 락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건전한 락 문화 발전과 락 뮤직 관련 지식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국 락 뮤직 월례세미나'를 계획했다. 지난 달부터 매월 열리는 이 행사는 △락의 산업적·교육적 효과 △락 악기의 특성 △음향조절 장치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강종원 기획위원은 "우리학교에 락 문화와 관련한 인적 네트워크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달 16일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그 첫 번째 행사는 '락 페스티벌의 모든 것, 공연 기획과 실제'라는 주제로 대중음악평론가 성우진씨가 강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락은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잘못 다뤄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라이브 전문 엔지니어의 부족으로 많은 락 밴드들이 방송출연을 꺼려한다"며 대중과 락이 멀어지는 원인을 지적했다.

또한 "국내에서 락 페스티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공연장소의 부족과 재정마련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야 하고 팬들의 의식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락 매니아들의 적극적인 놀이문화는 락 문화의 큰 자원"이라며 그 발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날 행사에 이어 주최측은 '건학 100주년

기념 국제 락 페스티벌' 준비를 위한 세미나를 2학기 내내 개최한다. 이번 달은 △8일=건학100주년 기념 국제 락 페스티벌의 기획 및 의견수렴 △22일=국제 락 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 방안을 주제로 락 페스티벌 관련 페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동국 락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는 내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중앙도서관 A/V실에서 외국 유명밴드의 라이브 공연실황을 동영상으로 감상하는 '동국 락 뮤직 동영상 시사회'를 갖는다.

이렇듯 락에 대한 진지한 학술적 토론과 고찰을 통해 앞으로 동국 락 문화가 발전적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본다.

(명) brightah@dongguk.edu

탈수습기



작은 목소리도 아우르는 '사람'을 위한 기자될 것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나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학교를 나갈 때면 말을 수 있는 그 특유의 '저녁향기'를 사랑했다. 평범한 밤에는 말할 수 없는 이 향기를 꼭 그 때에만 맡을 걸보면 아마도 하루를 뿌듯하게 마감했다는 데에서 생긴 스스로의 만족감이 아닌가 싶다.

살아가면서 내 삶에 만족하는 것은 쉽지만 어려운 일이었다. 수시 2학기로 대학에 합격해 친구들보다 조금 더 일찍 대학생활을 시작한 내게, 넘쳐나는 시간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즐거웠지만 무언가 허전했던 개강총회와 새터, 달라진 교우 관계에서 생기는 고민은 나를 신문사로 향하게 만들었다.

"신문사에 들어가면 엄청 힘들다더라"는 선배들의 걱정을 뒤로 하고 들어온 신문사는 사실 힘들고 고생하는 곳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 곳에는 특별한 대학생활이 있었다. 미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알 수 있었던 5.18행사, 치열한 농촌의 삶을 느꼈던 농활, 북쪽 사람들과 함께한 8.15 통일대축전은 내가 학생기자이기에 가능한 경험들이었다. 또 한 함을 때면 곁에 있어주는 동기와 선배들은 신문사 생활을 하는 내게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하지만 친구들이 여유롭게 캠퍼스를 거닐 때 나는 펜과 수첩을 들고 그 옆을 뛰어다녔고, 술자리를 거절할 때마다 멀어져 가는 친구들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교우관계에 소원해지고 휴가도 함께 못 보낼 만큼 가족에게 소홀해질 때면 '내가 신문사에 있는 이유'에 대해 수없이 고민했다. 더욱이 같이 입사한 동기들이 "힘들다" "내 시간을 찾고 싶다"며 하나 둘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함께 무너져나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쳐갈 때쯤, 어느듯 밤에 기사를 마감하고 신문사를 나서다가 다시 그 '저녁향기'를 맡았다. 힘이 생겼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남들과 같은 대학생활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동안의 두려움을 털어내고 보다 치열한 세상과의 만남을 통해 '특별한' 대학생활을 지켜가려고 한다. 나는 '정기자' 김경민이다.

김경민 기자 nanakm@dongguk.edu

전국대학연극제 예선

제27회 전국대학연극제 예선전이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31개 대학공연장에서 열린다.

전국 31개 대학 동아리가 참가해 실력을 겨루며, 최종 본선진출 8팀을 가려내게 된다. 본선은 오는 11월 3일부터 10일간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극제에 우리학교 '극예술연구회'도 참가했으며, 오는 22일부터 3일간 성균관대학교에서 연극 '길 떠나는 가족'을 공연할 예정이다.

청계천 복원 축하 콘서트

서울시가 주최하는 청계천 복원 축하 콘서트 '서울 서울 서울'이 오는 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피아니스트 서해경, 바이올리니스트 서해주, 국악 크로스오버팀 '시아' 등이 출연해 클래식과 뮤지컬 주제가 등을 들려준다.

공연 수익금은 청계천 문화기금 조성에 쓰인다.

내가 좋아하는 문화예술인

시대의 허를 찌르는 실천문학인



김 방 옥 예술대 연극학과 교수

원고 청탁서를 받았으나 생각이 쉽게 모이지 않는다. 그냥 술친구로 편찮은 사람, 연기 잘하는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뜻이 훌륭한 사람들은 있지만, 풍부하고 신선한 감각과 예리한 비판력과 아울러 실천력까지 갖춘 인물, 삶 자체가 매력적인 사람은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떠올린 사람이 얼마 전 세상을 뜬 미국의 여성 에세이스트인 '수잔 손탁(susan sontag)'이다.

우리나라에서 에세이라고 하면 다소 감상적인 취향의 신변잡기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일반적으로 관심분야가 좁거나 자기 전공에 갇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도 연극이라는 마이너리티 동네에서 비평이란 것을 하고 있지만 항상 답답하고 목이 마르다. 이런 내게 수잔 손탁은 대학 때부터 동경의 대상이었다. 여성적이기도 남성적이기도 않은 서늘한 지적 논매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수수한 플라넵 스웨터를 입은 모습부터 매혹적이었다.

손탁의 에세이는 현대사회의 병적 징후들을 예리하고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기도 하거나 그 자신이 에세이스트이자 문화비평가이자 소설가이자 희곡작가이자 실천적 지식인으로 전 생애에 걸쳐 눈부신 활동을 했다.

그의 초기작 '해석에 반대한다(1966)'는 지적 인 도발성과 세련된 취향으로 당시 수입된 모더니즘의 엄숙주의에서 해매는 촌스러운 미국 지식

인들의 허를 찌르며 '사진에 관하여(1977)'는 사진영상이 현대인의 감각과 인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최초로 본격 고찰한 글이다.

스스로 병마에 시달리던 그는 '은유로서의 질병(1977)'에서 나병·결핵·페스트·암·에이즈 등 질병이 지닌 시대적 상징성을 사유했으며 '타인의 고통(2003)'에서는 최근 이라크 전쟁 등에서 타인들의 고통이 영상 스펙터클로 소비되는 현상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의 비판정신은 지면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중년 이후 더 실천적이 되었는데 유교 내전 때 전통중인 사아예보에서 '고도를 기다리며'를 공연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9.11 테러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등 정치적인 입장개진에도 적극적이었다.

나라 전체가 무력증과 냉소에 빠져있고 그런 가운데 사회 각 분야에서는 양극적인 갈등과 반목이 고지지 않는 요즘,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이 무엇이며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회의조차도 무더 가는 요즘, 부끄러움으로 손탁의 글과 삶을 생각한다.

이번호가 신출된 독자칼럼 '내가 좋아하는 문화예술인'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자유기고를 기다립니다.

김지희 대학부장 gazababo@dongguk.edu

메아리

언론권력(?)

▲8·31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6억 원 이상 주택에 한하여 보유세율(4년 뒤)에 실거래가의 1%까지 확대하고, 1가구 2주택 이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4년 뒤)에 실

거래가의 5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1년 후 오히려 강남 아파트 값이 폭등하는 것을 보며,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야말겠다는 굳은 의지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한다.

▲8·31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신문들은 연이어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다른 기사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신문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지는 신문인지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평소에는 서민과 친한 척 하던 신문들이

가면을 벗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 비판보다는 있는(?)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철저히 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 세금폭탄이란 말로도 부족해 폭탄까지 그려넣는 조선일보의 센스는 대단하다.

▲우리학교 강정구(사회학) 교수가 인터넷 언론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글을 기고했다. 6·25 전쟁을 통일전쟁으로 규정하고 맥아더에 대한 잘못된 추종을 비판하며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한 그의 글은 보수·우익 단체들의 집단반발을 일으켰다. 일부 신문은 끊임없이 이를 이슈화 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도 기고한 강 교수의

글의 핵심이 맥아더에 대한 잘못된 추종, 공미국에 대한 맹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통일전쟁'을 이슈화함으로써 반공이 대우를 자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이 여론에 귀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나 여론을 만들어가서는 안된다. 특히 상위계층이나 보수·우익 세력의 이익에 편승해 그들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우리사회를 뒷걸음질치게 만드는 일임을 그들은 정녕 모르는 것일까.

김지희 대학부장 gazababo@dongguk.edu

동국대 출판부 도서안내 Http://home.dongguk.ac.kr/~book Tel. 02)2260-3483~4 Fax. 02)2268-5751

1 일본문학연구소 일본학총서4 간화선의 이론과 실제 정성본 지음 2005/국판/444원/12,000원 ISBN 89-7801-146-2 04220

3 유럽연합의 이론과 연방건설 (부:남북한 통일방안의 제도적 의미) 천상덕 지음 2005/신국판/438원/20,000원 ISBN 89-7801-148-9 93340

2 웨단파의 철학 삼가리를 중심으로 미메다 센기쿠 지음/ 강종원 옮김 2005/국판/340원/12,000원 ISBN 89-7801-151-0 94150

4 거시경제모형과 정책모의실험 장오현 지음 2005/신국판/190원/20,000원 ISBN 89-7801-144-6 93320

2 웨단파의 철학 : 삼가리를 중심으로 (ヴェーダの哲学: シャンカラを中心として)를 번역한 분서는, 웨단파 철학에 대한 본격적인 지식을 원하던 독자들에게 더없이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분서는 웨단파 철학을 집대성하고, 그로부터 수많은 분파를 파생시킨 인도철학 최고의 철학자 삼가리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특히 그의 저술 가운데, 다른 고전에 대한 주석서가 아닌 삼가리 자신의 독자적 저술 '우베데사 사하스리'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4 거시경제모형과 정책모의실험 장오현 지음 2005/신국판/190원/20,000원 ISBN 89-7801-144-6 93320

이 책의 저자는 불교학 및 인도철학 연구에서 세계적 권위자였던 나카 무라 하지메(中村 元)의 수제자로, 이들 학맥은 웨단파 관련 문헌학에 있어서 중요한 업적들을 이루었다. 저자 미메다는 스승이었던 나카 무라 하지메의 웨단파 관련 4부작의 학통을 이어받아, 삼가리의 독자적인 저술 '우베데사 사하스리'의 문헌학적 연구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한 인물이다. 웨단파의 전체적 역사의 개괄도 포함한 이 책은, 웨단파 철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입문하려는 사람들은 물론 전공자들에게도 필독서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나만의 작은 TV 'DMB'

90년대 말, 처음 휴대폰이 출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전화' 시대가 열렸다고 놀라워 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휴대폰은 국민 1인당 1대씩 소지할 만큼 상용화됐고, mp3 플레이어, 소형 게임기 등을 합친 단말기도 나왔다. 뿐만 아니라, 이제 휴대폰으로 TV를 시청하기에 이르렀다.

'내 손안의 TV'는 바로 이러한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말이다. 이제 휴대폰 단말기로 위성 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다. 바로 DMB를 이용해서다.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는 음성·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조해 휴대용 수신기에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이다. 위성을 이용해 전파를 보내는 위성DMB와 지상에서 주파수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보내는 지상파DMB로 나뉘어져 있으며, 시청자들은 휴대용 단말기와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 이를 접할 수 있다.

지난 5월 위성DMB사업자 T미디어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국내

최초로 위성DMB를 시작했다. 비디오 10개 채널과 오디오 25개 채널로 구성된 방송 5개월째에 접어들어 위성DMB는 고화질과 고음질을 자랑하며 지난 달 실가입자 11만을 넘어섰다.

영화·시트콤 등 제작 앞다퉀

DMB는 일반 TV와는 다른 콘텐츠로 이용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 작은 화면과 이동성, 순간성이라는 DMB의 특성을 살려 짧게는 1분부터 길게는 30분 이상의 DMB 전용 시트콤과 드라마,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다. 시청자 참여가 보다 원활한 것도 DMB의 장점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는 DMB를 겨냥한 온라인 영화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10여명의 감독이 합작해 10분내외의 총 100여편의 영화를 제작, DMB 상영 이후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다.

실제로 오는 8일까지 열리는 모바일 & DMB 영화제 'Mobile & DMB Fest2005'는 국

내의 200여편의 작품이 출품되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영화제에서는 모바일 카메라 폰으로 제작된 마이크로 무비와 셀카카메라 창작물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최근까지 지하중계망 구축 등으로 논란이 된 지상파DMB도 일단 오는 12월부터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지난 달 30일 전격 합의했다. 방송은 먼저 서울과 수도권으로 시작하되, 차츰 지방까지 영역을 넓어나갈 계획이다.

비싼 단말기·사회 문제 고려돼야

이렇듯 DMB 관련 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아직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가 단말기 비용이다. 일반 휴대폰 단말기 가격보다 약 1.5배 비싼 DMB 단말기는 일반인들이 선뜻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일반 휴대폰만큼 DMB 단말기가 상용화되지 않는 이상 가격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지하중계망 설치비 등 지상파DMB 무료화에 따르는 비용은 단말기 판매 수익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DMB 시대 개막에 따른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김관규(신문방송학) 교수는 "개인용 TV의 상용화는 개인이 고립적인 공간에서 TV시청을 가능하게 해 더욱 심각한 개인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TV 시청이 가능해져 사람들간의 대화가 단절되는 현상은 문화적으로 매우 두려운 것"이라며 DMB 사회 도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 손안의 TV' DMB는 점차 우리 사회의 떠오르는 매체로 주시되고 있다. 보다 새로운 것에 목말라있는 소비자는 이전에는 볼 수 없던 새로운 콘텐츠에 매료된다. 하지만 그러한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소시키기에 DMB는 아직 부족한 구석이 많다. 저렴한 단말기, 열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마련 등의 방안이 DMB 보편화에 앞서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매체비평

만화편

만화 박정희

'자조적 웃음' 주는 독재권력의 진실

민족문제연구소가 기획한 '만화 박정희'는 출간 전부터 많은 관심을 끌더니 지난 5월, 책이 나오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 박정희를 포함한 친일인사들의 명단이 발표되면서, 사람들은 이 책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화 박정희'는 '국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박정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그려진 만화책입니다.

하지만 '트집'부터 잡자면, 제목에까지 만화를 붙였지만 만화답지는 않습니다. 만화는 캐릭터를 통해 스토리를 시작하는 매체입니다.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가 서로 만나면 그 충돌과 갈등 속에서 스토리가 생기고 인물들은 대화를 통해 사건을 이끌어나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때문에 만화를 창작하는 사람들은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 이상으로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만화는 글과 그림이 단순하게 섞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화에서와 같은 연출력도 필요합니다. '만화 박정희'에서 이런 요소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린 박순찬 작가가 밝혔듯이 "이 책에선 만화의 큰 장점인 상상력의 발휘나 화려한 장식과 과장된 표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한 독재 권력의 상상력이 빚어놓은 화려한 포장과 허상을 벗겨내고 실체를 발굴하고자 하는 무미건조한 진실의 전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만화 박정희'는 꽤 재미있습니다.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스러져간 많은 분들이 듣는다면 큰일 날 말이지만 두 권의 분량이 턱도 없이 모자랄 만큼 그 어떤 극화보다도 역동적으로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역동적이라는 건 그만큼 박정희가 한국사회를 정말 만화적으로, 영화적으로 좌우해왔다는 뜻이고 그만큼 우리 사회는 험겨운 고통을 안고 살아왔다는 뜻이겠지요.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사회를 살아왔다는 자조적인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박정희'라는 뜨거운 감자를 옮겨줘줬습니다. 이제 먹기 위해선 손에서건 입에서건 식을 동안의 뜨거운 감수해야 하지요. 하지만 그 고통을 민족문제연구소만 감당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조금은 진실을 알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지요.

다행이도 '만화 박정희'는 그 고통을 조금은 수월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만화라는 장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이해의 용이성'이라는 만화의 특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화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그릴 수 있는 인간의 초보적인 표현수단이라서 다른 어느 매체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화의 이런 성격 때문인지 반대의견을 지닌 쪽에서도 만화를 낸답니다. 박정희를 둘러싼 논쟁이 학계와 언론을 벗어나 만화 전쟁으로 번질 듯합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에선 '이 책이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만화로 된 '인간 박정희'를 10월 즈음 선보인다고 합니다. 둘 모두 박정희를 있는 그대로 그린다고 합니다만,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자못 궁금합니다.

이대연

(사)한국만화문화연구원 기획실장

캠퍼스도 DMB 바람 '솔솔~'

교내 DMB 실시·관련 수업 잇달아 ... 학생들 관심도 증가

사회적 흐름과 더불어 대학들도 학교 방송국 DMB 실시, DMB 분야 기술 창업 지원 등 DMB와 관련된 분야의 대학들이 활발한 투자에 나섰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지난 5월 대학 방송국으로는 처음 교내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시연했다. 학교 자체적으로 무선랜을 이용해 DMB를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교육방송국 등 학내 영상·방송기관이 제작하는 콘텐츠를 교내 전역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방송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연세대는 학교 주변에서도 노트북이나 PDA·휴대폰을 이용해 학교 방송 및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연세대 교육방송국 장흥재(신학2) 국장은 "앞으로 더욱 특색있는 방송콘텐츠를 준비해 많은 학생들이 DMB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성대학교는 DMB를 응용한 기술창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 위해 기술혁신형 창업프로그램을 개설한다. 이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알맞은 창업을 유도해 미래성장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중소기업대학원 교육 과정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대학 내 DMB 관련 수업도 늘어났다. 서울대는 지난해 5월 경제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성DMB 개요 및 전망'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강원대도 지난 2월 강원도와 공동으로 DMB 핵심기술에 관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렇듯 대학 사회에서 DMB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가운데, 학생들도 이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내 최대 규모의 DMB전문 커뮤니티 'DMB유저닷컴' 운영자인 현용씨는 "현재 커뮤니티 회원 7천명 중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30%가량을 차지한다"며 "최근 대학생들의 DMB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생 회원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는 위성DMB가 실시되기 전인 지난 4월, 서강학보에서 실시한 DMB인식 설문조사 결과 학생 100명 중 57명이 DMB를 잘 모른다고 응답한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위성DMB와 DMB단말기가 출시되면서 젊은층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위성DMB에 가입한 이설희(사과대1) 양은 "등교하는 1시간 동안 지하철에서 DMB를 즐겨보는 편"이라며 "이동 중에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서 좋지만 학생 신분으로 요금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5년 우리나라 방송·통신계의 최대 화두인 DMB 바람이 대학가에도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다. DMB에 대한 대학생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DMB 이용요금 인하,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brightah@dongguk.edu